MAR 2 4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778 1982년3월23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March 23, 1982

釜山美文化院에 放火

警察발표 20대 7명으로 구성된 과격분자 소행인듯

"反美感情 정치적事件"

美국무성聲明書 "捜査위해 한국司直당국과 긴밀협조"

◇… 미국무성은 19일 부산소재 미문화원 방화사건은 반미감정이 담긴 정치적방화사건으로 보인다는 성명…◇
◇…서를 발표했다. 딘・피셔 국무성대변인은 이 성명서에서 『미국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테러행위도…◇
◇…규탄한다』면서 『현재 사건수사를 위해 미국정부는 한국 사직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화사건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유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무성은 한국정부…◇
◇…의 조사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희망하면서 이번사건으로 양국관계는 변함없이 우호관계가 지속될 것이라…◇
◇…고 강조했다. …◇

80년 光州 美공보원放火사건 同一犯추정
여자 2명이 휘발성물질 붓는 현장을 목격

(서울) 부산미문화원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19일 이사건을 과격분자조직에 속한 20대의 남녀3명 방화사건으로 단정하고 이들을 80년 12월 광주에서 발생한 광주미공보원 방화사건을 저지른자들과 동일범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이 사건의 수사본부장 한기형 부산시경 부국장은 이날 하오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광주미공보원 방화사건의 주동자였던 정순철씨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히고 범인은 단독범이 아닌 여자 2명을 포함해 20대 7명으로 구성된 조직적이고 과격한 불순분자의 소행인 것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가 발생했던 18일 하오2시께 20대 여자2명이 휘발성 물질을 붓고 다른 남자1명이 불을 지르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밝혔는데 이날 문화원1층 출입구 안내책상에는 등록부를 기재하고 있다가 중화상을 입은 김의순양(24・동아대회화과 4년)등 2명에 의하면 20대의 여자2명이 노란색 플라스틱통에 든 인화성물질을 바닥에 쏟았다는 것. 이를 본 수위 문홍석씨(62)가 쫓아가 제지하자 25세 가량의 남자가 달려들어 문씨를 밀어 제치는 순간 「펑」소리와 함께 불길이 솟았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불이 났던 때와 같은 시간에 부산중구 충무동과 신창동 유나백화점 앞등 두곳에서 2백50여장의 반체제・반미내용의 불온유인물을 발견했다.

한편 한국경찰이 수거한 불온유인물은 4만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면서 전두환대통령 체제를 반대하고 미국은 한국을 그들의 종속국으로 만드는 조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이번 사건은 반미투쟁의 도래를 알리는 불길이라고 말했다.

外務部, 유감의뜻 美대사관에 전달

주한미대사관은 19일 「외무부로부터 부산시 미문화원 방화사건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히고 『이런 행동은 그 누구에게도 유리한 것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미대사관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사건이 한국민의 뜻도 아니며 한미 두나라의 관계에 마찰이 있어서 일어난 것도 아니다』고 말하고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해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 우범자 소탕전
20일 서울서 5,739명 체포

(서울＝20일 외신 종합)

한국경찰은 지난 18일 부산에서 일어난 미공보원방화사건에 이어 전국적 우범자 소탕작전을 펴 서울에서만 하루동안 5.739 명이 체포됐다고 관계당국은 발표했다.

정부는 방화범의 주범으로 간주되는 정순철에게 2천만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18일 부산 미공보원에서 일어난 사고로 학생 1명이 죽고 3명이 부상당했다.

치안국에 의하면 서울서만 만명의 경찰이 동원된 이날 체포자중 대부분은 교통위반 절도등 경범자들이다.

이중 3.877명은 즉결처분,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졌다. 1.663명은 훈방되고 199명이 조사중이라고 발표했다.

전국적 체포 숫자는 발표되지 않았다.

$60억 대한차관 일본 액수줄일듯

(도꾜18일＝연합)스즈끼 젠꼬 일본수상은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고있는 60억달러 대한차관제공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18일 일본의〈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한국은 1982년 부터 86년까지의 5개년 경제개발을위해 일본이 각종차관을 제공해 주도록 요청했는데 한, 일 양국은 차관액수에 견해를 달리했었다.

일본의 신문들은 이문제가 5월초로 예정된 사꾸라찌・요시오 일본외상의 한국방문시 결말지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조성호관장 환송 무역관 자축파티

토론토의 한국무역관(KOTRA)은 조관장 환송파티를 오는25일(목)하오5시 30분～7시30분 세계무역센터(60 Harbour St.)에서 벌인다.

조성호 무역관장은3년임기를 마치고 서울본부로전보되는 것이다.

후임인 이전식 관장의토론토 도착은 예정보다 늦어져 다음주에나 있을것으로 보인다.

인종차별 금지촉구 한국, 유엔에 전문

(서울19일＝연합)한국정부는 19일 인종차별제거의 날을 맞아 유엔본부에 전문을 보내 "세계는 어떤 형태의 인종차별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부의 메시지는 특히 남아프리카에서 탄압받는 흑인들과 한국민간의유대를 공고히하며 각국이조속한 시일내에 유엔의 인종차별금지 결의안을 이행할것을 촉구했다.

노태우 씨 체육부 장관에

(서울20일＝연합)한국정부는 노태우 정무장관을신설된 체육부장관, 이화여대 이영호 교수를 체육차관에 임명했다.

체육부는 20일아침 시내 외환은행본점 빌딩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이자리에는 유창순 국무총리를비롯 정부, 체육계인사들이 모였다. 체육부는앞으로 서울에서 거행될 86년의 아시안 게임과 88 년 올림픽을위한 준비작업전담부서이다.

가정의 벗 한국일보

「삼라」 오리무중
법정살인범 체포에 경찰총동원

◇범인 삼라

지난 18일 온타리오 대법정에서 판결에 불만을 품은 범인 삼라는 상대측 변호사 폰세카와 증인 2명을 총으로 쏴 죽이고 또 다른 한명에 중상을 입힌 1급 살인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인 시크인 사원은 캐나다의 동인도인 20만 대부분인 시크인의 종교로 힌두교와 회교를 기본요소로 갖고 있는 종교이다.

이 총살극은 오는 28일 사원집행부선거를 거행하려던 집행부와 이를 저지하려는 「삼라」파간에 생긴 마찰로 법원은28일 선거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었다.

유일신을 믿는 시크교는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며 신도들은 금연등 절제생활을 지킨다.

법정살인극을 수사중인 메트로경찰 살인사건 전담반 데이빗・부드바이형사는 21일 이번 사건이 용의자 삼라의 단독범행일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사건직후 경찰은 다른 두명의 용의자도 무장 위협인물로 총기사건에 관련됐다고 발표 했었다.

나흘째 범인 삼라를 추적중인 경찰은 아직 뚜렷한 단서를 잡지 못했고 범인이 토론토를 벗어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사건후 메트로 경찰및 온타리오주경찰은 경찰력을 총동원 범인 수색중이다. 사건당시수염을 기르고 터번을 썼던 범인 삼라가 수염을 깎고 터번을 벗었을 가능성도 크다.

모금위원회 결성 한인회관 관리위

토론토한인회관관리위원회(위원장 조한철)는 29일(월)하오7시 한인회관에서 「한인회관 확장이전 모금위원회」를 결성, 여러 각도로 효과적인 모금방안, 모금시기, 범위등 의견을 나눈다.

◆겨울속의 여름－지난 주말 이틀간 수은주가 87도까지 치달아 남가주일대는 사상최고로 뜨거운 2월을 맞았다. 산페드로로 부터 벤추라에 이르는 비치에는 피서인파로 대만원, 20일에는 35만명, 21일에는 45만명이 겨울속의 한 여름을 즐겼다.〈산타모니카〉

토론토발행인：김 명 규
편 집 인：이 석 현
광 고 부 장：송 광 호
인 쇄 인：박 정 서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찬영 변호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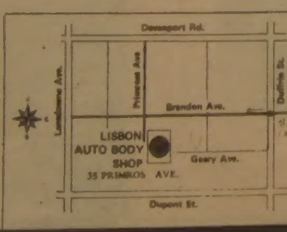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Merrill Lynch Royal Seurities Ltd.
금, 은, 증권, Bonds, 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강 상 욱
증권투자의 핵심은 시기의 선택으로 싸이클의 Bottom(최저수준)을 포착하는 것이다. 이는 요사이처럼 증권값이 하락할때 잡을 수 있는 것이지 값이 연일 폭등하여 일반대중이 서로 사겠다고 모여 들때는 결코 잡을수 없다.

LISBON AUTO COLLISION INC.
⊙A급 BODY MAN
⊙A급 페인터.
⊙수리중 차대여
⊙사고후 보험처리—책임보증.
⊙TOWING 써비스
⊙철저한 신용

※완전 BODY WORK!
주소：35 PRIMROSE AVE. TOR.
전화：(B)533－8507. 8508
(R)439－6548. 266－8925
이영두. 이건학 형제


점심 특별 스페샬
한국관
기 간：1982년4월15일까지
시 간：12시～오후2시까지(월～금)
$3.50：냉면, 짜장면, 곰탕, 짬뽕
$5.00：유부덮밥, 생선초밥, 회덮밥
4월12일부터 해장국 출현!
한국서 일류요리사 한국관에 오다!
일식전문요리사：김우현 • 한식및 궁중요리사：김옥자
•영업시간• 오전11시～새벽1시
대표：나 옥 녀
628 BLOOR ST. W. ☎：536－0290, 531－0277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0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한국정부의 조작이다"

최중화, 「유고」서 무혐의 주장

◇최중화씨

(벨그라드 20일 로이터=뉴욕지사전화) 전대통령 암살모의사건에 관련, 캐나다경찰의 수배를 받은 최중화씨는 20일 유고슬라비아 수도 벨그라드에서 "캐나다에서 나에대한 공정한 재판이 보장된다면 어느때든지 캐나다로 돌아갈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사전관련 혐의로 캐나다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신문을 통해 안뒤부터 숨어지냈다고 밝혔다. 영어이름을따라 「제임스·최」명의의 캐나다 여권을 가진 최는 이번사건과 관련 없다고 주장하면서 "캐나다 당국이 공정한 재판과 나의 신병을 한국에 인도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하면 어느때고 가족이 있는 캐나다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자기가 한국,북한 또는 어느나라의 정보당국과도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1월 "태권도를 일본과 유럽에 보급 시키기 위해 캐나다를 떠났다."고 말한그는 그동안 숨어 있었던 것은 "한국정보당국이 나를살해, 또는 납치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정부가 나와, 특히 전대통령 독재에 반대, 민주화 운동중인 부친을 해치기 위해 꾸민것"이라고 주장한 최는 범인으로 체포된 2명중 찰스·야노버는 전부터 아는 사이이나 그가 사건에 관련됐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야노버는 최의 주선으로 사건에 가담했던것으로 알려졌다.

최는 20일 유고의 벨그라드를 떠날계획인데 행선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월남난민 소년이 1등

루빅스·큐브 대회서 26초

21일 토론토 사이언스·센타에서 개최된 제1회 캐나다 전국 루빅스·큐브대회에서 키치너 대표 둑·트린(14)군이 26초만에 문제를 해결, 1등함으로써 상금 500달러와 더불어 5월 세계대회가 열리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왕복 여비를 받았다.

20일부터 전국 대표 8명이 다운타운·힐리데이·인에 머물며 연습했는데 토론토 대표인 교포 김수남군은 32초로 4위에 머물렀다. 세계기록은 영국인이 수립한 23초이다.

둑·트린군은 월남 '보트난민'으로 80년 이민 왔으며, 학교 수학성적이 평균 99점이다. 그는 6개월전부터 학교숙제를 끝내고 하루 1~2시간씩 루빅스·큐브를 가지고 놀아 왔다면서 뜻밖의 우승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4900만 본국송금

835개 외국기업

(서울19일=연합)81년도 총 835개의 대한투자 외국인 업체들이 4900만달러(미화)를 본국으로 송금했다.

19일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송금액중 42%인 2080만달러는 135개미국업체가, 24% 1180만달러는 612개 일본업체가 송금한것이다.

미국업체들은 숫적 으로는 일본업체에 뒤지나 보다 이익이 많은 석유, 비료 및 자동차업에 투자한 까닭에 더 많은 이익금을 송금한 것으로 풀이된다.

6개 유료TV 운영허가

내년 4월경 시청가능

캐나다 래디오 텔레비전 방송및전신위위원회(CRTC)는 18일 6개회사에 유료-TV(Pay TV)운영허가를 내리기로 결정함으로써 83년 4월경에는 캐나다에 유료TV가 등장하게 됐다.

캐나다 방송업계의 마지막 돈방석 이라는 명칭을 들어온 유료TV는 TV회사가 광고를 안싣는대신 시청자들로 부터 시청료를받아 운영하도록 돼있다.

이번에 운영권을 따낸회사들은 온타리오주, 대서양지역, 알버타주에 각 1개회사와 전국TV회사 1개, 그밖은 다국적어방송, 예술방송등이다. 유료TV운영권을 둘러싸고 적어도 전국의 28개 회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전국방송인 퍼스트·초이스 방송사장에 따르면 첫5년간 1,550만달러의 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했던 당초의 계산을 독점권을 주지 않는다는 CRTC의 방침으로 차질이 있을것이나 흑자를 낼것은확신한다고 말했다.

6개회사중 전국방송인퍼스트·초이스, 예술전문의라이블리·아츠·마켓, 온타리오 인디펜던트 유료 TV는 토론토에 본거지를 두고있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自由勞組·표현자유 찬양

칸·세자르 映畵賞도받아

아카데미賞출품 波영화「鐵人」 受賞후보서 빼달라

폴랜드정부서 집행위에 요청

폴랜드정부당국은 미국아카데미 수상집행위원회에 공한을 보내 아카데미상 외국영화부문에 후보작으로 추천되어있는 폴랜드영화「철인」을 후보작에서 제외시켜줄것을 요청했다.

폴랜드의 대표적 감독인 와즈대의 작품인「철인」은 지난해 계엄령이 선포되기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자유노조운동과 표현의 자유개념을 찬양하는 내용을 그린영화다.

폴랜드의 이같은 심사대상 제외요청은「미국의 반폴랜드 태도에 대한 항의표시」가 그이유다.

이영화는 지난해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 프랑스의 세자르영화상에서도 수상작으로 선정돼 와즈다감독은 현재 파리에 여행중이기도하다.

사상처음 후보작에 선정된 작품을 빼줄것을 요청받은 아카데미상 집행당국은 곧바로 위원회를 열고 이를 거부키로 결정했다.

한 관계자는 사건을전제,『이러한 요청은 전혀 최종심사에 고려 [illegible] 않을것』이라고 말하고『오히려 심사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를것』이라고 평했다.

아카데미상에서 최우수 외국영화(비영어권영화)는 참가외국이 각각 1편씩 추천한것중에서 집행위원회 심사위원회가 5편을 선정한다.

「철인 이외에 올해 아카데미상 외국영화부문에 추천된작품은 스위스의「만원보트」, 헝가리의「악마」, 일본의「머러운강」, 이탈리아의「3형제」등이있다.

한편 세자르상을 수상하기위해 파리에와있는 와이즈감독은 이문제에 대해『전혀 코멘트하고 싶지않다』고 말했다.

세자르상에서는 그의작품「철인」외에「대리석인간」도 함께 수상했다.

와즈다감독은 자신의영화와 아카데미상 수상후보작에서의 제외요청 여부뿐아니라 조국폴랜드의 어떤일에 대해서도 언급을 회피하고 있으며, 파리에서도 자신의 거처를 알리지 않은채 매스컴과 관계기관에 전화로만 소식을 전하고있다.

그는『많은 사람이 침묵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그러나 폴랜드와 폴랜드국민은 민주주의를 포기하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민 이혼율감소전망

베이비붐세대 성년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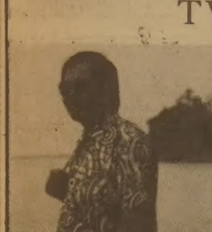
「베이비붐」세대가 중년층으로 바뀜에 따라 앞으로 이혼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브루스 채프맨 인구조사국장이 14일 말했다.

채프맨 국장은「V.S.뉴스엔드 월드 리포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베이비붐세대가 결혼의 중요성을 인정하고있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10명중 4명이 이혼하면 높은 이혼율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채프맨씨는 또 베이비붐세대들이 성장함에 따라 타주로의 이주율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민선교·정서에 공헌

TV선교방송 한돌


◇박희민 목사

「TV선교방송」이 4월5일로 1주년을 맞는다.

한인장로교회(담임 박희민)는 지난79년부터 매스컴 선교방송을 계획, 조사에 착수했으며, 80년에는한인회의「TV한국」에 매주 5분간씩 설교를 실시했고, 81년1월 교회내에 매스콤선교위원회를 구성, 만반준비에 박차를 가한 끝에 4월5일 첫 방영을 내보냈다.

이 TV선교방송은 토론토 한인회의「TV한국」과 더불어 2대영상방송으로쌍벽을 이루며, 시청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시설면에서 카메라1대 시스템, 3만달러정도의 기재를 갖추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카메라2대 시스템(1만6천달러상당)을 갖출 계획이라 한다.

방영시간은 매주 60분으로 일요일 상오8시30분~9시 City TV(채널 79, 케이블7)이고, 재방송은 목요일 낮12시30분~1시 MTV(채널47, 케이블4)에 나간다.

프로그램 내용은 설교, 음악, 좌담, 간증등이며, 설교담당은 박희밀 목사, MC는 김인철 전도사가 담당하고있다.

매달제1, 제3주 토요일에 촬영하는 이 TV 선교방송의 제작과정은 교역자및 4명의 장로로 구성된 정책위원회가 제작방향등을 결정하고 프로그램 위원회가 자세한 시간및 내용을 작성한후 4명으로 구성된 2개조의 촬영부가 매달평균 4회교대로 촬영한다.

이 촬영된 테이프를 가지고 프로그램 위원회 작성의 순서에따라 편집녹화부는 편성, 제작완료된 테입을 방송국에 넘긴다.

지출면에서 보면 81년도 방영료가 12,500달러, 82년도 방영료가 26만달러로대폭 증액됐다.

이 방송의 현재방향은올해 한달에 한번씩 타교회 순서를 담당하고있는데, 내년 83년도는 공동운영체(타교회)를 물색할 예정이며, 장차는 범교회적 운영으로 매주1시간짜리 3회방영을 목표로 삼고있다.

한국은 그저그런 나라

외국관광객 46.2%가

(서울19일=연합)한국을 방문한 외국관광객의 3분의1이상이 기대보다 좋은 인상을 받고 한국을 떠났다.

한국관광공사(KNTC)가 작년도에 조사한 통계에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4,740명중 36.7%가 기대보다좋은 인상을 받았고 46.2%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고 답변했다.

533 2361

◆캐나다 챔피언 둑·트린군

루빅스·큐브창시자 토론토에

◆1979년 루빅스·큐브를 발명, 전세계에 2천만개 이상을 팔아 돈방석에 오른 헝가리의 수학교수 어노·루빅씨(37세). 그는 캐나다 전국 루빅스·큐브 대회를 맞아 토론토에 왔다. 그는 100년 묵은 헝가리의 옛 장난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6개월간의 고심끝에 루빅스·큐브를 발명했다. 큐브가 만들수 있는 수학적 조합은 43퀸틸리온(백만의 3제곱)가지나 된다. 그가 푸는 시간은 1~2분.

금년에는 더 값지고 아름다운 가구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심겠읍니다.

스페샬 세일-35% O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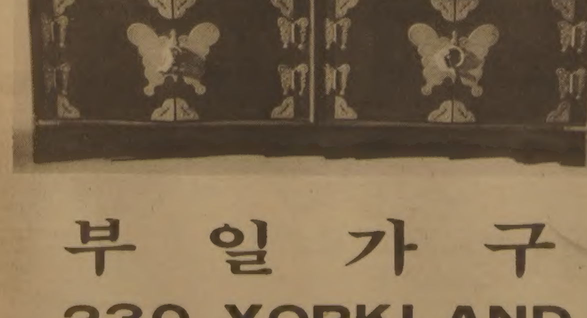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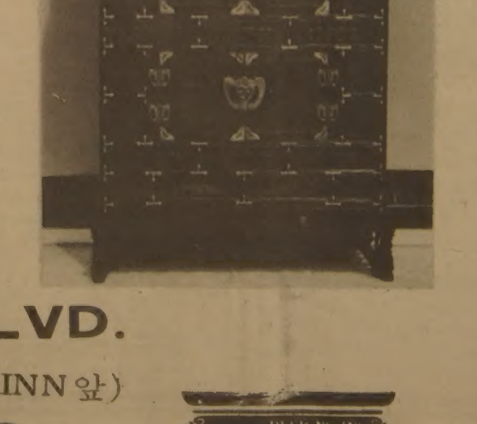
3월22일(월) ~ 4월3일(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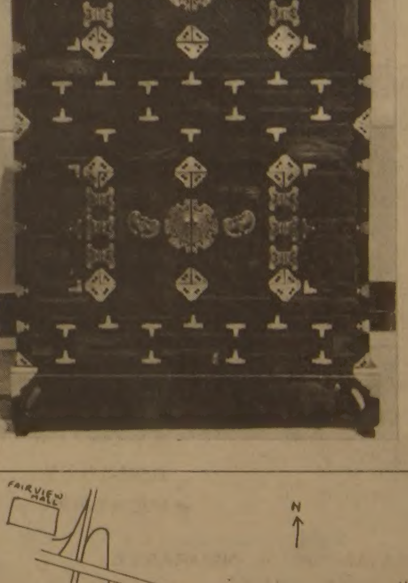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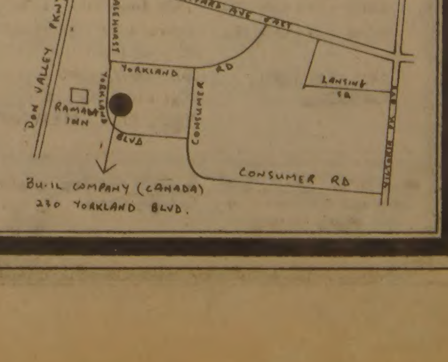
한국의 富一商事에서 직수입한 우리나라 고유의 각종가구를 선보입니다.

250개 이상의 실내에 장치하실 수 있는 각양각색의 가구들.

한번들려주셔서 구경하십시요.

2층장, 3층장, 약장, 장농, 안전장, 각종테이블, END TABLE, 장식용 선반장 사방탁자, 문갑, 돈궤, 반닫이 책장, 비밀장등

부일가구

230 YORKLAND BLV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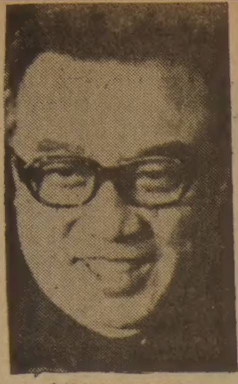
(세퍼드×돈·밸리HWY) (라마다 INN앞)

(416) 498-6953

DESIGNS INC

70회 생일맞아 5천만 달러 잔치

김일성,김정일을 후계자로



◇북한수상 김일성

김일성의아들 김정일이 오는4월 70회생일을 맞는 김일성을 대신 북한을 통치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한국 국가 안전기획부 당국자가 말했다.

17일자 뉴욕 타임즈는헨리 스톡크 기자의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정부 소식통을 인용,이같이 보도했다. 동기사 요약은 다음과같다.

해방후 북한을 37년간통치해온 김일성은 이미 많은 권력을 아들 김정일 에게 이양해 왔고,오는 4월 15일 제3세계 공산국의 귀빈등 10만명이상이 동원될 맘모스 생일축하연에서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공식발표할 것이라고 한국의 정보소식통들은 말했다.

이번 생일축하를위해"북한의 거의모든 각료가 아프리카 중남미등으로 흩어져 생일축하사절을 모집하고 있다.그들은 전세비행기등을 대절,대대적 동원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국의 정보소식통들은 말한다.

준비작업의 하나로 평양에있는 70피트높이의 대형동상등 북한전역에 산재한 3만개의 김일성동상을 반짝반짝 닦고 있다고 전해진다.

북한에서 흔히 불리워지는「위대한 지도자」김일성은 자기에게만 주어졌던「영웅」이란 호칭을 자기스스로 지난 2월 40회 생일을맞은 김정일에게 붙여주었다.

매스게임,체조경기 등이 펼쳐질 이 생일잔치는 5천만달러 이상의 경비가 들것이라고 한다.

동경의 북한소식통들은 김정일이 이미 김일성의일상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한정부소식통은 김정일이 이번에 완전히권력을 잡지는 않을것이며, 앞으로 5년간 서서히 거머쥘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의 북한문제 연구소 김창순소장은"김정일의 권력부상은 낮게 평가됐었다. 김정일의 위치는 공산당제1서기이고,정치국원서열은 오진우 국방장관 다음이다. 김일성은 공산당 총서기직에 있다.

김정일의 후원그룹 으로는 그의 고교동창생인 오극열 북한군 참모총장등이 있다.70만의 북한군을 잡고있는 이들 신흥군 세력은 김정일의 강력한 후원자들이다.

김정일의 정식 수상임명에는 헌법개정이 요구된다. 어쨌든4월 15일의 생일잔치 이전 김정일이 부수상에 임명될것은 거의 틀림없다.

한국정부 관리들은 김일성이 아들을 후계자로 지명하는것은 소련의 스타린이나 중공의 모택동 사후 격하운동이 벌어진것에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아들의 후계자 지명은김일성이 사후에나 그가 늙어 실질적으로 통치할수없어도 자기의 지위가 흔들리지않게 하려는 포석으로 간주되고 있다.

콘택트렌즈 취급 블루어안경점

토론토의 교포안경점(주인 구진모)은 635 Bloor St.W.로 가게를 이전, 아울러 콘택렌즈를 취급하기 시작했다.

특별세일기간은 4월말까지.(Tel 531－2236)

이민자안내 한국말책자 온·주 주민에 무료배부

캐나다에 새로 정착한 이민자는 모든것이 낯설고 익숙치않아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이런 이민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이민자 안내」(The Newcomers Guide)소책자를 발행하고 있다.

정부, 지역봉사 및 이민자가 흥미를 가지는 프로그램등을 실은 본 책자는 각장마다 고용, 보건, 교육, 법률, 사회봉사, 소비자정보, 이민 및 시민권취득을 포함하고 있다.

이 안내책자는 온타리오 거주 이민자가족에 무료로 배부된다.

이 책자는 영어이외에 각에트닉 언어로 소개됐으며 한국어로는 78년도 발간됐다.

온타리오 이민자로서 무료로 책을 구하려면 아래의 주소로 주문하면 된다.

Veronika Nacsa, Publications Clerk Newcomer Services Branch
Ministry of Citizenship and Culture
77 Bloor Street West, 5th floor, Toronto, Ont,M7A 2R9
Tel. (416) 965－2285

— 정 정 —

17일자 1면 축구협회 기사중 권성웅씨를「재무이사」로 기재한 것은「총무」의 잘못이기 바로 잡습니다.

◆폭파된 미사일 궤적—미공군은 18일 저녁 6시15분경 시험발사중이던 미니트맨2형 미사일이 고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공중폭파시켰다고 발표했다. 미사일은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수마일 떨어진 바다 상공에서 폭파되었는데 완전폭파되기전 사진에서 보는것과 같은 궤적을 남겼다.(헐리웃)

<장편연재소설>

영원의 방랑객 ㉑

고마태오(종욱 : 토론토한인천주교신부)

보좌신부의 첫 시련

"부리노,그래 우리는 벗이요,또한 전우다. 우리둘이는 인생의 광장에서 어쩌다만난 그러한 벗이아니라,생사를 초월한 전쟁을 경험한 전우야.물론 신부인 내 신분으로는 자네의 회개를 바라는마음 간절하네마는 자네가 원치않는것을 강요하거나 또는 설득하려들지 않겠네.자네가죽어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만일 자네가 회개를 원치않는다면 나는 자네에게 종교문제를 절대로 거론하지 않겠네.그것을나는 약속할수 있네. 그러니 안심하고 자네인생담이나 계속하게."

"이거 참 거창한 약속인데…,내가죽어 무덤에 묻힐때까지 내 신앙문제를말하지 않겠다고…"

"자네가 그것을 바라지않는다면 말일세. 그러나 자네가 그것을 바란다면나는 언제든지 자네를 환영하겠네. 친구의 의리는 자기가 사랑하는 벗이 원하는 바를 이겨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이야. 그러한 뜻에서 자네가 진심으로 지옥 가는 것을 바란다면, 달리 말해자네가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항하고, 또 교회를거부함으로 자네가 지옥간다해도 나는 그것을 막지 않겠네. 자네의 인격과 자유를 철저하게 존중해 주겠다는 말일세."

"좋아! 내가 지옥에 가도 넌 나를 말리지 않겠다니… 좋아! 하여튼 넌 별난 신부다. 신부가 남의구원문제를 죽음앞에 까지도 간섭 않겠다니 넌 이만 저만 별난 놈이 아니구나."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만큼 나는 자네의 자유의사를 철저하게 존중해 주겠네."

물론 나는 나에 대해 싹트기 시작한 부리노의 관심과 우정을 자극하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것이다. 신부가 어찌 남의 구원 문제에 무관심할 수 있겠는가.

"하여튼 넌 뭔가 지독한 신부놈이다. 그러한 너 에게 이제는 저항할 수 없는 매력까지 느낀다. 그리고 그러한 너의 신념이 한편 부럽다. 앞으로 너와 나사이에는 술시합만이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의신념상의 대결이 있게 되는구나. 좋아! 나의 무신론적 신념안에 자리잡은 교회에 대한 미움과 너의 사제적 신념속에 키워진 인간적인 사랑과의 대결을우리는또한 하게되었군… 좋아!너로부터 그 어떤 강력한 도전을 받고있는 기분이지만,좋다.한번 우리서로 대결해보세."

"그래 백전백승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해병대의본보기를 보여줌세.그래 한번 대결해 봄세."

"지난 몇년동안 술과 싸움으로 소일하다 지친 요즘 내 생활이 무료해서 죽을지경이었는데 너의 출현은 내 삶에 새로운 활력소를 주고있다.자 그럼,그런 철학적인 말을 지워버리고 내인생 경험담을 계속할까?"

"그러기로 하세.그래 그후 어떻게 됐나? 자네가 실연당하고 군에 입대한다음에 자네의 인생이 어떻게 변해서 갔는가 말이야."

"많이 변해져갔어. 군인이 되려면 사관학교에 입대하라는 가족과 측근자의 권고도 있었지만 모두 사양했다네.당시나 지금이나 캐나다 군대는 지원병제도가 아닌가.그래서 기분전환겸 사병생활을 좀 하다가 제대해서 다시 대학공부를 계속해볼 예정이었어. 신병훈련을 마치자마자 나는 중동지역에서 독일의저 유명한 로매로 장군과 대진하고있던 몽고메리장군 휘하의 캐나다 보병연대에 배속되었다네.심심치않은 전투를 약 1년간 계속하다가 부상을당해 나는영국본토로 이송되어 약 한달동안 치료를 받았어.그후 캐나다 본국으로 소환되어 신병훈련소 교관을하다가 낙하산부대에 편입되어 특수기습작전 훈련을받게 되었다네.이 낙하산부대 대원들은 거의가 다 전투경험을 갖고있었고,또술께나 마시는 친구들이었지. 말하자면 프랑스의 외인부대 대원들과 같은 그러한 사나운 친구들이었어.곧우리는 사하라사막으로 출동해서 거기서 다시 훈련을 받았네.훈련은 고되었으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재미는 나쁘지 않았네. 훈련이 끝나면 술과 계집은 항상 우리곁에 있었고, 인근부락에 나가 싸움하는것이 훈련의 피로를 풀고 여가를 즐기는 우리들의 일과였다네.거기서 나는 싸움과 계집질을 배웠으며, 그후부터 그런것을 하나의습관처럼 내 삶에 지니고 살게 되었다네.그러다가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거쳐독일 본토전에 참가했었고, 백림전투에서 두번째의 부상을 당했어. 잠시 프랑스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영국으로 이송되어 병원에서 정양중 독일의 완전 패망소식을 들었다네."

그는 여기서 또 말을 멈췄다.그리고 이번에는 시가에 불을 붙이며 몇모금의 짙은 시가연기를 천정으로 날렸다.그때 시가연기에 가려진 그의 표정은 뭔가 괴로움을 참는것 같았다.

·(계 속)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 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각종회의석 준비、단체손님 환영、최고의 음식、저렴한 가격、성실성의 멋、염가로 봉사합니다.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종 합 보 험

김 흥 량

● 생명보험
● 자동차보험
● 주택, 상점보험
● 사업보험
● R. R. S. P.
● INCOME AVERAGING ANNUITY
●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482－0166(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생활안정급고.

토론토중앙장로교회

바 자 초 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본 교회 여전도회 에서는 성전건축 기금을 위한 바자회를 아래와 같이 열게 되었읍니다 가족과 친지들을 모시고 오셔서 호뭇한 시간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4월3일(토요일)
장　　소 : 중앙장로교회 지하친교실 (502 Bathurst St. (배더스트 × 칼레지))
전　　화 : 961－8361
취급품목 : 식품부(고추장 된장 약과 김치 떡류 장아찌류) 의류부, 화초부, 기타여러가지
메　　뉴 : 장국밥, 군만두

주최 : 토론토중앙장로 교회 여전도회 일동

춘계 대방매
(NORITAKE DINNER SET)

*토론토 내에서 EATON'S와 SIMPSON'S 그리고 저희 AMIK 세곳에서만 특별히 작년 가격으로 재고가 떨어질때까지 판매하고 있읍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작년세일가격＋5% OFF 합계 작년가격의 35% OFF이니 가격 비교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저희 가게에서 구매 하세요.
*기타 많은 NORITAKE제품 세일 중입니다. 일차 왕림 하시어 무엇을 싸게파는지 구경오세요.

창점소재지 : 4841 YONGE ST. (Yonge과Sheppard의 Sheppard Centre내)
전　화 : 221－5990 Mrs. 고

쌀위주食生活 과감히 바꿔야

全대통령 全北순시 物價安定기반 뿌리내리게 협력을

【全州】全斗煥 대통령은 17일『主穀의 自給을 위해서는 增産과 인구증가 억제도 중요하지만 이와함께 쌀위주의 우리 식생활을 과감하게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식생활 개선을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 全北도청에 들러 趙澈權지사와 관계국장들로 부터 道政보고를 받은뒤 이같이 강조하고 物價안정을 위한 전국민의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특히『정부의 물가안정정책이 계획했던것보다 더순조롭게 풀려나가 올해 물가가 한자리 숫자로 잡혀들어가고 있다』고 밝히고『이럴때 일수록 모든국민이 더욱협력해서 물가안정기반을 뿌리내리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보고가 끝난뒤 도청회의실에서 관내기관장 및 각계인사80여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환담했다。

이에앞서 全대통령내외는 헬기편으로 88올림픽고속도로 8工區공사현장에 들러 공사진척현황을 보고받고 작업인부들을 격려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9시30분 全北淳昌郡淳昌邑佳爾里357 제8工區공사현장 사무실에 들러 黃成夏감독관으로부터 淳昌에서 전남潭陽에 이르는 고속도로 공사현황을 약15분동안 보고받고『工期를 최대한 단축시키되 공사의質도 높여야한다』고 당부했다。

全대통령 어제歸京

全斗煥 대통령은 이틀간에걸친全南北도청순시를마치고 17일하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歸京했다。

住宅융자규모 줄여 2천억원 供給

정부는 1·14조치에 따라 풀기로했던 3천억원의 주택수요자금융가운데 2천억원만을 공급키로했다。

17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이같은 조치는 최근 시중의 유동성이 크게늘어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는등 유동성규제가 요구되고 있기때문이다。

1·4분기말까지 계획된 총통화증가율은 24.5%이나 15일 현재 24.9%에 달하고 있으며 정부는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신규대출도 억제할 방침이다。

한편 마감을 4일 앞둔 주택수요자금융에 대한 융자신청은 중순에 들어서면서부터 부쩍 늘어나 하루신청액이 50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15일은 1백30억1백만으로 신청접수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이에따라 15일현재 접수된 신청액은 1만8천3백39건 1천4백68억8천9백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관계당국은 마감일(20일)까지 하루 평균 1백억원씩 신청이들어와 총융자신청액은 2천억원에 달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당국자는 유동성규제의 문제도 있고해서 접수를 연장하지않고 당초 마감일인 20일로 신청접수를 마감한다고 밝혔다。

國會法 엄격준수 李民正총무 밝혀

李鍾贊 民正黨원내총무는 17일『제110회 임시국회에서 빚어진 국회운영상의말썽을 거울삼아 앞으로 국회법이 엄격히 준수되도록 해나가겠다』면서『만일 국회법을 어기는 사례가 일어나면 마땅히 법에따라 조치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李총무는 이날 可樂洞民正黨 중앙정치연수원 연수에서 이같이 밝히고『역사의 흐름속에 정치쇄신의 불가피하게 제정된 法이므로 정치활동被規制자의 解禁은 당분간있을수 없다』고 말했다。

日깡패두목집 放火 美國人、韓國도피설

【京都17日共同=聯】자칭골동품상인 미국인 데이비드·쿠비아크씨(36)가 16일 일본이로하 깡패두목 야마다·쓰도무(47)의 교오또(京都)사무실과 자택에 방화를 기도한후 한국으로 달아났다고 교오또경찰이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쿠비아크씨는 이날 새벽 4시15분께 야마다의 사무실과 집에 차례로 방화를 기도한뒤 이날하오 나리따(成田)공항을 빠져나가 서울로 달아났는지 쿠비아크는 방화기도장소에 편지를 남기고 갔는데 이 편지는 야마다가 한 농부와 여인을 빼앗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크루즈·미사일 太平洋早速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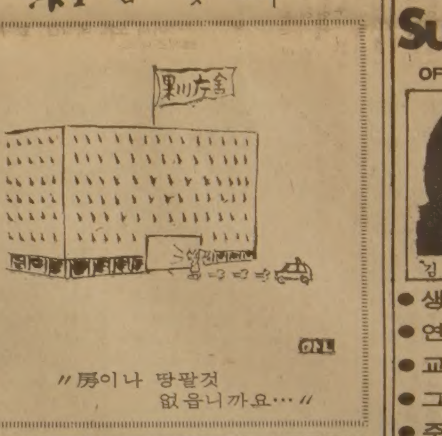
【워싱턴17日=曺淳煥특파원】로버트·롱 미태평양지구사령관은 크루즈·미사일의 조속배치를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16일 美하원군사위원회에서 증언했다。

롱제독은 특히 크루즈·미사일무기체제는 태평양지역 소련군사력증강으로 심각히 필요해진 화력을 재래식및 핵무기측면에서 증대할 것이며 태평양지구 미군의 파괴능력을 현저히 강화할것이라고 증언했다。

韓社黨 창당준비

舊社會黨인사들을 주축으로 창당작업을 추진해온 韓國社會黨(가칭)은 16일 중앙선관위에 창당준비위(위원장金哲) 등록절차를 마쳤다。

社會漫評



美업자의 몰지각한 쌀利權경쟁

對韓관계沮害 美에손실

"對韓 借款방해 위협은 쌀輸出만 지연 시킬뿐"

美國務省부차관보 議會증언 法廷소송등 中止촉구

【워싱턴16日=曺淳煥특파원】美국무성동아시아및 태평양담당부차관보 앤더니·알브렉트씨는 16일 한국이 미국산쌀 수입과 관련, 근거없는 뇌물수수설로 구설수에 올라있는 이때 미국측업자들의 법정소송이나 정치적보복을 하겠다는등의 일종의 모호한 위협행위는 한국의 미국산쌀수입을 더욱 지연시킬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치、안보및 무역이익에 큰피해를 줄것이라 말했다。

알브렉트부차관보는 이날美하원 農務委綿米糖小委 증언에서 미국의 곡물수출회사인 코넬社의 그로버·코넬사장이 『만약 미국정부가 코넬社의 경쟁회사인 퍼미社와 한국과의 쌀수출계약을 막지않는다면 한국에대해 정치적보복을 가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폭로했다。

알브레트부차관보는 또 코넬사장이『한국정부가 퍼미社로부터 쌀을 구매할 경우 미국은행의 對韓신용대부와 군사판매를 위한 신용대부에 말썽을 일으킬것을 분명히한다』고 말했음을 증언했다。

그는 이어『이는 韓美간의 군사협정과도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곡물서와 美대사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알브레트씨는 또 한국정부는 81년산 미국쌀 50만톤의 구매를 이행코자하고있으며 82년산 쌀의 對韓판매를위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를 조성할때라고 말해·미국업자간의 몰지각한 利權다툼을 경고했다。

한편 이날증언에이어 약 3시간40분동안진행된의원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알브레트씨는 한국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비싼값으로 미국쌀을구매했다는 주장이있지만 美국무성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퍼미社와 캘리포니아산쌀70만톤을톤당 2백80달러의 싼값에 구매하기로계약함으로써 오히려 1천2백만 달러의 이득을 보았다고 말했다。【증언요지및질의응답내용4면】

퍼미社 賂物說 강력부인

【워싱턴16日AP=聯】미퍼시픽·인터내셔널 미곡회사(퍼미)의 마이클·버스턴 변호인은 16일 미의회에서 퍼미사가 경쟁회사들보다 높은가격으로 미국산 미곡을판매하기위해 한국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주장을강력히 부인했다。

버스턴 변호인은 이날 하원의 한소위청문회에서 퍼미사는 81년과 82년 21만톤의 대한미곡판매를 독점하기위해 한국관리들에게 결코 수입금의 일부를 제공한바없다고 말했다。

그는 퍼미社가 코넬社를맞고소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코넬社변호인은 퍼미社를상대로 제기한 소송과관련、駐美한국대사에게 증인으로출두해줄것을 요청하는 소환장을 제출、한국정부를 직접적으로 괴롭혔다고 말했다。

브레즈네프 後繼者 「키릴렌코」失脚說

【모스크바17日AP=聯】소련공산당서기장겸최고회의간부회의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의 가장유력한후계자로한때알려져있던 당정치국원 안드레이·키릴렌코가 권력에서 밀려났거나 중병에 걸려있을지 모른다는 추측이 서방 관측통들사이에 점차 고조되고있다。

이같은 추측은 키릴렌코가 16일 크렘린에서 열린 제16차 노조대회 개막식에 당정치국원으로서는 유일하게 별다른 이유없이 불참함으로써 비롯됐다。

16일의 노조대회에는 13명의 당정치국원중 9명이 참석했는데 키릴렌코를 제외한 불참자들은 지방 1서기들이거나 현재 외국에 여행하고있는 정치국원들이었다。

위컴、한국軍 現代化지원 對韓 軍事借款 증액촉구

【워싱턴17日=曺淳煥특파원】존·위컴 駐韓미군사령관은 『한국이 앞으로5년동안 한국군의 전투력향상을위해 30억달러의 미국산 장비구입계획을 세우고 있기때문에 미국은 한국에 유리한상환조건으로 해외군사판매(FMS)차관을 증액해줘야 할것』이라고 16일 하원軍事委에서증언했다。

위컴장군은 지난해에 있은 상원 증언에서는 한국에대한 북한의 군사력우위를 강조했으나 16일의 하원증언에서는『한국이 86년의 아시안게임개최와 88년올림픽개최등 국제적으로 지위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전망이 밝은 경제회복으로 국력에서 북한을 압도해가고 있다』고 증언했다。

위컴장군은『金日成의 권력과 그의 아들 金正日로의 후계자로 추켜올리는데 대한 북한내의 가능한잠재적저항、그리고 한국정부의 평화통일제의에 따라 생겨난 한반도통일에 대한 국내외에서 증대되고있는 요구등에 한반도 평화의 장기전망과 관련하여 주목해야할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는『북한이 지난 2년동안에 후방병력을 신속히 전방으로 배치하는 훈련에 주력하는등 全面공격능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대비、韓美연합군은 재래식무기에 의존하는 장기방위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中共、共産黨序列 國家아래로 낮춰

人民해방軍 명칭 국방군으로 바꿔

【홍콩17日=聯】중공당국은 금년말 개정을 목표로 국가주석및 부주석제의 부활、인민공사의 폐지、인민해방군을 국방군으로 개칭하는 것등을 주요골자로한 헌법의 개정안을 이미 마련했다고 17일 홍콩의 大公報와明報등 주요중국어 일간지들이 北京발時事통신을 인용보도했다。

이 신문들은 중공의 헌법수정위원회가 기초하여 오는 3월하순 개최될 제23차회의에 제출될 개정초안은▲제1조의 국가체제규정에서 현재의 무산계급독재를 삭제하고 대신、인민민주독재로 대체했고▲毛澤東이 공산당을인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창립했다는 자구외에도 孫文이 주도한 辛亥혁명이 중화민국을 수립했다는 사실을 삽입했다고 설명했다。

상무위회 제23차 회의에서 심의를거친후 약6개월이내에 이개정안은또▲전인대상무위원장과 국가주석제의 임기를 5년으로하고 2번의 연임을 허용하는 외에도 수상의 임기도 5년으로하되 3차례연임케하고▲공산당을 국가의 아래에 둔다고 규정한것으로 이 신문들은 전했다。

인민공청회를 마친후 금년말께 개최될 제5기전인대제5차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승인될 이개정안은 또 국가주석이 전국의 무장역량을 통솔(지금까지는 黨주석이 통솔)하게했고 인민공사는 해체하여 단순한 사업기구로鄕과 村으로 개조하기로했다고 이신문들은 덧붙였다。

美本土겨냥 核미사일 蘇、쿠바등에 配置고려

【워싱턴17日AP=聯】소련공산당 서기장겸 최고회의간부회의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는 미국을 강타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쿠바나 니카라과에 배치할것을 고려하고있는지도 모른다고 16일밤 미국의 시사평론가들이추측했다。

시사평론가들은 브레즈네프가 16일 SS20 중거리 미사일의 유럽배치동결을 발표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이 당초 예정대로 신형 퍼싱2와 크루즈·미사일의 유럽배치를 강행할 경우『소련은 유사한 거리에서 미국영토를 강타할 수있는 보복조치를 취하지않을수 없을것』이라고 위협한것과 관련 이같이 분석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이관리는 소련이 쿠바에핵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어떠한 대응조치를 취할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그같은 조치는 1962년 쿠바미사일위기 당시 美蘇간에 체결된 협정에대한 명백한 위반이될것』이라고 말했다。

百歲의 健康

◇지난2월 1백세생신을 맞은 스페인의 지론도·로페스옹이 16일 고향 몬트포르테·데·레모스읍에서 여느때와 다름없이 자전거산책을 즐기고 있다. 로페스옹은 건강유지에 메달를 받는것보다 더 좋은것은 없다고。【루고(스페인)16日AP電=聯】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地平線

▼남의나라 얘기인줄만 알던「교내 폭력」바람이 우리서울에도 번진 모양이다。올들어 서울에서만 중고생5명이 교내에서 폭력으로 숨져 학생폭력을 뿌리뽑기 위한 비상이 걸렸다。

▼具本錫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 고교내에서 살인사건이 나면 교장과 담임교직원은물론 자신도 책임을 져야하겠다고 밝혔다。교내에서의 칼부림、주먹싸움이 얼마나 심해졌으면 이토록 단호한결의를 보였을까。염려스럽다。

▼학교에선 쉬쉬 덮으면서 얼버무리기 때문에 살인까지는 안가더라도 노출되지 않는 폭력사건은 더 있을것이 확실하다。몇해전엔가 이웃 일본에서 일어난 무시무시한 교내폭력사건 몇가지가 생각난다。

▼어느중학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학생 두명을 교사가 적발하자 학생들이 거꾸로 교사를 구타、상해를 입힌사건이 발생했다。얻어맞은 교사는 유도3단이었지만「교사가 학생을 때렸다」는 소리를 듣지않기위해 무저항으로 맞았다는것이다。그대신 교사가 학생을 경찰에 고발、매스컴에도 크게 보도되었다。또 어느 학교에선 학생 수십명이 교장이하 교원전부를 집단폭행、교사들이 집단등교거부를 했었다。그래서 사친회에서 수십명의 학부형이 동원돼 등교하는 선생님들의 신변을 몸으로 보호했다는 웃지못할 일까지 벌어졌다。

▼우리나라와는 천양지차가 있는 얘기들이다。우리학생들은 일본학생들처럼 지나치게 거친점은 없다。대체로 선생님에겐 고분고분하다。사소한시비끝에 학생끼리의 편싸움、칼부림사건이 간혹있기는 하지만 학교안에서 수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한데 올들어 살해된학생이 서울에서만 5명이나 된다는것은 예사일이 아니다。교내폭력은 현대사회의 병리로 교사 한 사람의 지도능력을 떠나 학교、가정、지역사회를 포함한 사회전체의 교육력이 문제되기때문에 사태는 의외로 복잡한것이다。

▼남자고교생 주머니에서 칼이나 담배가 나온다거나 하면 여고 화장실에서도 담배연기를 볼수있다는 얘기마저 들게된 세상이다。교사의 체벌시비、상급생이 하급생에게주는 집단기합의 부작용、흉기소지학생·퇴폐학생 증가등 골머리가 아픈일은 한두가지가 아니다。불량학생의 비행을 고자질 했다고 따돌림을 받아 여학생이 자살했다는소식도 들린다。대부분 순박한 우리중고생들이 마음놓고 학교에 다니고 사제관계가 화기애애한 우리의 좋은 전통사회기풍을 지키기 위해선 학생들의 자숙도 필요하지만 학부모나 교원들의 세심한 배려가 더 필요한것같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궁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 (B)
791-8196 (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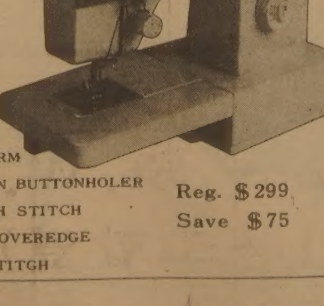
Y—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야몬드 부실보상
—최저가격
—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쿠폰을 가져오면 $10 할인

3월 수퍼 스페샬 싱거 재봉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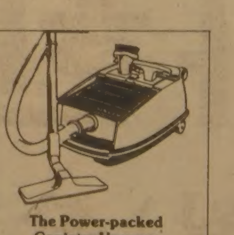
★싱거 회사중 이곳에서만 교포특별 우대합니다. ★무료 강습★

—기간 : 3월12일~3월말까지—



●FREE ARM
●BUILT IN BUTTONHOLER
●STRETCH STITCH
●SLANT OVEREDGE
●BLINDSTITGH
Reg. $299
Save $75

컴퓨터식 재봉틀
Touch-Tronic® 2010 Memory Machine
• Touch-Tronic memory panel and stitch selection • Flip & Sew® panel • Universal pressure system • Twin needle capability •
Reg. $1349
Save $300



The Power-packed Canister Vacuum
Step right up to fast, deep-down cleaning at a smooth Singer price.
Model C-141
REG. $169.95
SPEC. $111.95

Fashion Mate® Zig-Zag Machine
ONLY $128
• Front drop-in bobbin • Snap-on presser feet • Sews elastic and stretch fabrics • Three needle positions • Model 247

튠 업(TUNE-UP)
SINGER FAMOUS 4STEPS TUNE UP

*Trademark of THE SINGER COMPANY
Authorized user: Singer Company of Canada Ltd.

SINGER APPROVED DEALER

SINGER SQUARE—ONE 쇼핑센타내
MISSISSAUGA (416) 277-0341 MR. 오

SS20 중거리 미사일 蘇, 유럽配置 동결

배치된것도 年內제거

美서 퍼싱II등 강행땐 새核 보복

브레즈네프, 勞組總會연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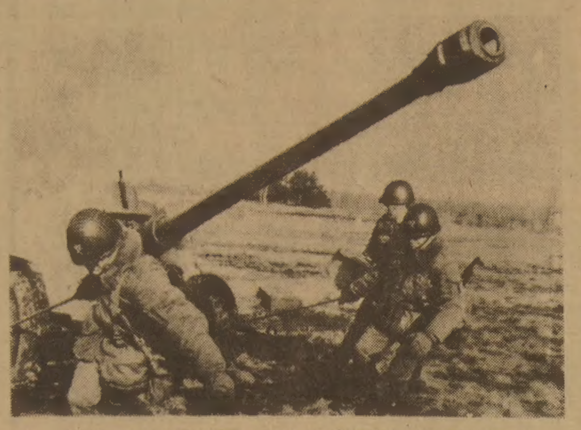
【모스크바16日UPI=聯合】蘇연방 최고회의 간부회의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는 16일 소련이 3개탄두적재 SS20核미사일의 우랄산맥 以西배치를 일방적으로 동결하며 이미 배치된 일부 미사일도 금년중 제거될 것이라고발표했다.

브레즈네프는 소련이 지난 4개월간 3백기의 새로운SS20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했으며 또다른 1백50기를배치할계획이라는 레이건 대통령의 비난이 있은지 하룻만인 이날 소련노조총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그러나 브레즈네프는 만약 미국이 새로운 퍼싱II및 크루즈·미사일을유럽에 배치할 경우 소련은 미국내목표를강타할수있는 신형 核무기로보복을가할것이라고경고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관들은 1년전 소련공산당대회이후 브레즈네프가 행한 최초의 중대연설인 이날 연설에서 발표된 조치가 일방적인 것이 아닌 꼬리표를 붙인것이라고 말했다.

모스크바의 서방 외교소식통들은 소련 중거리미사일의 유럽배치를 동결하겠다는 브레즈네프의 발표가 소련국내의 경제적곤경과 유럽의 끈질긴 정치적압력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르샤바條約國 훈련에 참가한 波 포병들

蘇聯을 비롯한 바르샤바 조약기구軍들과 합동군사훈련중인 폴란드 포병들이 최근 바르샤바 교외의 한훈련에서 1백㎜對전차포를 이동시키고있다. 【바르샤바16日AP電送=聯合】

77년 實戰배치된 多彈頭 蘇 SS20미사일 諸元

全長16m·백50kt級3개적재…射程5천㎞

……해설……

소련이 최근 유럽과 극동에 증강배치중인 SS20미사일은 지난77년 처음 실전배치된 신형중거리 다탄두 핵미사일이다.

전장16m·직경1·7m의 SS20미사일은 1백50K톤급의 개별목표겨냥탄두(MIRV) 3개를 적재하고있으며 명중오차한계(CEP)는 1백~2백m로 높은 적중률을 보이고있다.

74·75년중 배치된 기존 SS18 SS19型의 대체용으로 개발된 이SS20은 射程5천㎞로 우랄산맥 以東기슭에서도 西歐내 모든목표물에대한 공격이 가능하며 극동의 바이칼湖나 캄차카반도 부근에서는 한국과 일본,중공지역까지도 사정권에 들게 된다.

고체연료를 이용, 2~3단계로 추진되는 SS20은 현재 약3백기가 유럽에 배치돼있으며 5개기지가 추가건설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聯合】

「시나이撤收」反對시위

이스라엘 군중 4만여 "聖地포기말라" 촉구

【예루살렘16日AP=聯合】상당수가 총기류로 무장을 한 약 2만~4만명의 이스라엘군중들이 16일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시나이반도 철수에 반대하는 항의시위를벌였다.

이스라엘 극우파의원들이 포함됐으며 주로 요르단西岸 이스라엘정착민들로 이루어진 이들 시위군중은 이스라엘정부가 시나이반도 聖地를 포기하지 말것을 촉구했다.

이들 시위군중은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면서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부터 최근에 사망한 극우파영토통합론 세력지도자 예후다·즈비크루크의 묘소에까지 시위행진을 했다.

한국, 多邊外交총력

東京新聞보도

【東京17日=聯合】한국정부는 88년 서울올림픽개최를 앞두고 『한국주도에 의한 한반도평화』를 구축하기위해 적극 다변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도오꾜(東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메아리

대통령의 民泊

『현장에 나가 직접 물어본는게 중간보고과정을 거치지 않기때문에 제일확실하고 정확하다』 全斗煥 대통령은 언젠가 이런 말을 하였다. 그래서인지 제12대 대통령취임 1년이 되는 자난3일까지 직접민정을 살피기위해 국내나들이를한것이 모두1백61회,거리로 쳐서 1만9천7백48㎞에 이르고있다.역대 대통령중 이만큼 서정백방을 직접 살핀 예도 드물다.

대통령직이란 공식직무만 수행하는데도 벅찬 자리다. 가까운 미국의 대통령중 우드로·윌슨 대통령은 격무와 과로로 쓰러졌던 일이 있고 프랭클린·D·루스벨트 대통령은 매일강심제를 복용하면서 집무하였다. 그러면서도 윌슨 대통령은 그직분에 대해 『법률상으로나 양심상으로나 능력껏 偉大해 질수있는 自由가있다. 대통령직이란 그 대통령의人間性과 智慧, 그리고 力量을 측정하는 尺度가 된다』고 말하면서 불편한 몸으로 자기직분을 끝까지 다하였다.

또 대통령직은 직무못지않게 儀典,格式,그리고 警護등이 대통령자신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겨준다. 이에 구애되어 직분이 경직되다보면 때때로 국정과정에서 下意上達이나 上意下達이 잘 안되는 폐단까지 생기기쉽다.

이런폐단에서 벗어나기위해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토요일이면 자주 파리서 2백여㎞인 향리 촌가에 돌아가 시골이웃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지스카르·데스탱 대통령은 곧잘 혼자 차를몰고 돌아다니다 고속도로의 톨·게이트에서 사진기자에게 붙들렸었다. 케네디 대통령은 심야에 남몰래 부인재클린과 백악관을 빠져나와 펜실베이니아거리를 산보하기를좋아했다. 때로는 둘이서 팔짱을 끼고 다녔고 눈이나 비가오면 재클린이 스카프만 머리에 사뿐히 쓰고 촉촉히 젖으며 거닐었다 한다.

16일저녁 全대통령은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전라도의 한 시골집에서 「民泊」을 하였다. 사전에 아무런 예고없이 潭陽군내 檗山마을에 찾아들어 村老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밤이되어 마을 이장집에서 하루를 묵은것이다.

비를 맞으며 거닌 대통령의 낭만과는 먼 이야기라해도 서민적인 풍모는 全대통령한테서 더 한결 짙게풍겨난다. 미국 델라웨어대학의 크로닌교수는 미국의 대통령이야말로 「미국시민의희망」이라고 말했다.우리 대통령에게도 이말을 그대로 옮겨놓고싶다. 「한국서민들의 희망」이라고—.

코스타리카警察 엘살바도르 左翼게릴라 支援

기관총·軍服 大量압수

【산호세16日UPI=聯合】코스타리카경찰은 최근 엘살바도르좌익게릴라세력에 운반중이던 대량의 무기를 압수했으며 이에 관련된 南美人 무기밀매업자 9명을 체포했다고 코스타리카당국이 16일 발표했다.

코스타리카당국은 압수된 무기중에는 기관총 叛徒5백명분의 전투복, 폭탄제조장비, 폭발물, 수류탄 그리고 무기를 숨길 비밀칸막이가설치된 차량10대가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수백개의 위조여권과 비자및 약30개국으로부터 수집한 이민관계서류도 압수했다고 관리들이전했다.

당국은 압수된 무기가 화폐로 따져 얼마나 되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1백명의 게릴라가 충분히 중무장할수있는 量이라고 말했다.

카리브 封鎖땐 他지역에 영향

리먼 美海軍장관

【워싱턴16日AP=聯合】미국은 카리브해역 어느곳에서건 해상봉쇄를 단행할수있으나 이로인해 다른지역의 해군배치상황이 영향을 받게될 것이라고 존·리먼 美해군장관이 16일 밝혔다.

리먼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카리브海해상봉쇄가 대서양과 太平洋주둔 美함대의 일부를 빼돌려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美함대가 보유하고있는 함정 4백80척으로는 中美해안에서 해상봉쇄를 단행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결과적으로 다른곳에 배치된 함정을 차출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美행정부내에서는 쿠바로부터 中美의 여러게릴라단체로 무기가 흘러들어가는것을 막기위해 해상봉쇄나 공중봉쇄를 단행해야 한다는 소리가 일고있으나 대부분의 국방성고위관리들은 이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있다.

軍政이후 拷問으로 15명死亡

터키政府, 聲明통해 첫是認

【앙카라16日聯合=AFP】터키정부는 16일 인권상황에 대한 西方국가들의 비난과 관련, 지난80년9월의 군사정부집권이후 터키국내의 형무소에서 고문으로 사망한 사람은 15명이라고 시인했다.

고문의 만연및 고문에 의한 사망사실을 터키정부가 확인한것은 처음있는일이다.

일한·오츠라크 국무상의명의로 발표된 정부성명은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가 제시한 62명의 고문피살자명단에 관해 『이중에서 확인된것은 15명』이라고 말했다.

이 성명은 歐共市(EEC) 각료이사회의장인 레오·틴데만스 벨기에외상이 인권실태파악을위해 터키를 방문하기 이틀앞서 발표됐다.

◇女性 속옷 시리즈… 런던의 모델 킨티양(右)과 데비양이 16일 비오는 런던거리에서 우산을 받은채 케이서의 새로운 여성 속옷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킨티양은 「완전한 조화」라는 새란제리를, 데비양은 거들과 브러지어, 팬티등을 선보이고 있다. 【런던16日AP電送=聯合】

칼립海 거센「政治波高」

—昏迷속 中南美사태… 어디까지 번지려나 <中>

불붙은 中南美사태에 강경입장을 고수해오던 레이건 美행정부는 지난 15일 이지역의 평화정착의 길을 모색키위해 당사국과 직접협상을 추구할 입장을 밝혔다.

레이건행정부의 갑작스러운 협상모색은 中美사태에 대한 미국의 어려운 입장을 보여주고있다.

레이건 美행정부는 그동안 군사및 경제원조, 해상봉쇄위협등 中南美의 불길을 끄기위해 강온양면작전을 펴왔으나 현지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국내외 여론의 호된 비판으로 궁지에 몰리고있다.

레이그국무장관은 15일 유엔대표부에서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캐나다등 4개국 외상과 회담을 가진후 카리브해 평화를 위한 협상용의를 밝히고 ①미주기구(OAS)헌장에 포함된 불개입원칙준수 ②미국거주③니카라과 망명자들의 활동제한 ④中美의 공격용중화기구입제한 ⑤미국의 대니카라과 경제원조재개 ⑥엘살바도르 게릴라에대한 니카라과의지원중단등을 지난해 8월 니카라과에 제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 도미노

레이건행정부는 中南美사태를 「東西대결의 장」으로 간주해왔다.

엘살바도르사태의 악화는 소련의 지원을받고있는 쿠바와 니카라과의 엘살바도르게릴라원조 때문이며 엘살바도르가 적화되면 다시 온두라스·베네수엘라가 차례로 무너질것으로 보고있다.

미국의 문턱인 이지역국가들이 좌파세력의수중에 넘어가면 미국의 전략적이해가 걸린 멕시코만과 파나마운하가 위협을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레이건행정부는 엘살바도르를 「마지막 도미노」라고 불렀다.

미국은 때문에 엘살바도르를중심으로한 中南美사태를 지난75년 월남의 몰락후 적화된 인도차이나사태와 비교하고있다. 미국의전략가들은 엘살바도르를 월남에비교한다면 온두라스를 당시의 캄보디아와 비슷한 상황으로 보고있다. 게릴라들이 불리하면 도망칠수있는 성역도되고 무기공급루트도 되기때문이다.

내전에서 국제전으로 번진 전투양상도 비슷하다고 본다.

때문에 미국은 엘살바도르의우익정권을 상당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굳이 유지해야한다는 결의를 다짐하고있다.

미국은 엘살바도르내전 격화의 근본원인이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과에 기지를 둔 쿠바등 친소국가들의 무기및 군수물자의 공급때문이라 믿고있다.

턱밑의 불…代理戰등 모색

"美는 손떼라"극한 輿論도

美중앙정보국(CIA) 케이시국장은 마나과에 6천명의 쿠바인, 동독과 소련인 50~1백명을 포함 불가리아, 북괴, 베트남,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에서 보낸 군사전문가들이 엘살바도르의 게릴라들을 돕고있다고 밝힌바있다.

카터행정부당시 인권을 이유로 엘살바도르에 원조를 중단했던미국도 게릴라들의 공세강화로 내전이 격화된 81년1월 5백70만달러상당의 군사원조를 결정한뒤 군사및 경제원조를 강화해왔다.

미국도 이어 직접참전의 방법까지 모색하며 소련과 쿠바의 지원을 봉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했다.

미국은 지난81년1월22일 니카라과에 게릴라지원중지의 최후통첩을 보내고 쿠바봉쇄의 엄포를 놓았다.

미국은 또 엘살바도르정부군을 돕기위해 조지아州의 포트베닝군사기지와 노드 캐롤라이나의 미군기지에서 엘살바도르의 장교와 사병들을 훈련시키는 동시에 50명의 미군사고문단을 파견했다.

미국이 점차 엘살바도르에 깊이 개입하자 미국내에서는 미국이 「제2의 월남전」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높아졌다.

일부의 극단적인 여론은 미국이 무조건 엘살바도르에서 손을 떼야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때문에 레이건행정부는 엘살바도르에서 싸우기전에 비판적인여론과 싸워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됐다.

미군의 엘살바도르 파병문제에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오던 레이건 대통령은 최근 여론의 압력에 미국파병설을 부인하고 대리전을 모색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토머스·엔더스美국무차관보는 지난6일부터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등을 방문하고 범미주평화군창설가능성을 타진했다.

엔더스차관보는 미주기구(OAS)가 汎아메리카 평화유지군을 창설, 지난65년1월 1만1천명의 군대가 도미니카사태에 개입하는데 근거가됐던 리오데자네이로 조약을 원용, 엘살바도르에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고말했다.

엔더스차관은 『리오데자네이로 조약을 원용한다면 군사적인 조치는 물론 정치·경제적조치등 각종 집단적조치를 취할수있다』고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같은 입장에 칠레는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으나 엘살바도르 군사정권을 지지하고있는 아르헨티나,코스타리카등은 경제원조에는 찬성하나 군사개입은 반대하고있다.

어느쪽이든 묘수가 보이질않는 것이 현中南美사태다.

미국은 애초 엘살바도르사태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

우선 엘살바도르가 미국의 매사추세츠州정도의 소국이기때문에 큰 부담이없는 군사및 경제원조로 좌익 게릴라들을 제압할수 있을것으로 믿었다.

더구나 소련은 이지역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없으므로 미국이 웬만큼 강경하게나오면 소련이쿠바와 니카라과를통해 엘살바도르게릴라지원도 쉽게 포기할것이라 판단했다.

여기에 미국은 이지역에 뿌리깊은 反美감정과 국민과 유리된 군사독재정권의 존재를 전혀 계산하지못한것이다.

【申相碩기자】

◇어서 오게 레이건。 늪속이 나쁘진않다구— 브레즈네프。

"남편權力승계위해 총력"

2人者 미셸르 아이티大統領 부인

미셸르 아이티 대통령부인(사진)이 남편 장·클로드·두발리에 대통령의 권력을승계받기위해 치열한 노력을 전개중이다.

「베이비·독」이라는 별명으로 더알려진종신대통령 클로드·두발리에는 사냥하다얻은 지병을 치료하기위해 아이티를 떠날것으로 알려졌는데 출국전에 대통령직을 대행할 攝政人을임명해 놓아야 한다.

부통령직을 탐내고있는 미셸르는 이미 지난해 시어머니 시몬느·두발리에 여사로부터 퍼스트·레이디칭호를빼앗아 냈고,남편 두발리에 대통령이 드라이브나 요트를 즐길때 사실상 국가정책을 대행해 왔다. 【이코노미스트誌】

◇미셸르 아이티 대통령 부인

外信인덱스

◆콜럼비아號 22일상오10시 카운트다운=美유인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의 3차 우주비행을 준비중인 美항공우주국(NASA)은 16일 비상착륙시의 일기불순예보에도 불구, 오는22일상오10시(한국시간23일0시) 발사를 위한 카운트다운개시를 계속 추진하고있다고 밝혔다. 【케이프카내베랄=UPI】

◆北傀許錟유고訪問마쳐=북괴外相 許錟은 16일 5일간의 유고슬라비아 공식방문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갔다.

許는 유고방문중 요시프·브루호베치외상을 비롯해 세르제이·크라이게르 대통령과 베셀린·듀라노비치 수상과 만났다. 【베오그라드=UPI】

◆南阿共軍, 앙골라侵攻=남아공화국군은 지난13일 인접 앙골라로 침입하여 서남아프리카인민기구(SWAPO) 게릴라 2백1명을 사살하고 다량의 무기와 탄약을 노획했다고 남아공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서남아프리카방송(SWABC)을 인용, 이번 게릴라소탕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윈드호크=UPI】

金日成 생일行事에 해외使節 확보腐心

【서울=聯】北傀가 연초부터 阿·亞·中南美등지의 40여개국가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巡訪외교행각을 전개하고 있는것은 오는9월 바그다드의 비동맹국회의를 겨냥, 對北지지기반을 재점검하기위한것인 한편 오는4월15일 金日成70회 생일행사에 참석할 축하사절파견요청및 개별 인물들을 대상으로한 초청工作에도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모의 白堊館건축

★美, 대통령경호원訓練위해

美행정부는 대통령경호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워싱턴교외에 백악관모의건물을 건설할 계획인것으로 16일 알려졌다.

1백60만달러의 경비를 들여 블레어·하우스(백악관영빈관)및 라파이에트공원도 함께 지을 이백악관모의 건물은 대통령경호요원훈련양성시설현대화계획의 일환으로 워싱턴교외에있는 메릴랜드州의 벨트스빌의 넓은대지에 세워질 예정이다. 【워싱턴=AP】

海外토픽

13·6㎏얼음떨어져

★外界서온것으로 추정

지난 12일 미국오클라호마주노먼에 무게가 약13·6㎏이나 되는 대형얼음덩어리가 떨어져 기상학자들이 그 생성원인 규명에 나섰다.

미국립폭풍우연구소의 피터·레이박사는 이 얼음덩어리가 떨어질 당시 폭풍우가 없었다면서 문제의 얼음덩어리가 우박이라기 보다는 비행기나 외계로부터온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노먼(오클라호마州)=UPI】

39년만에 破片토해

★육순노인 기침하다가

2차대전당시 타이·버마간을 운행하던 철도기관사였던 한 남자가 최근 기침을하다가 39년동안 자신의 허파속에 들어있던 파편이 목구멍에서 나왔다고 일본의 共同통신이 보도.

사사끼·데쓰로(68)라는 이 남자는 지난19일 TV를 보던중 큰 기침을 했는데 이때 목구멍에서 길이 1인치 넓이3분의1인치가량의 검은 금속조각이 나왔다는것. 【東京=UPI】

아세아한약방

3월22일(월) 확장이전

확장이전

645 Bloor. St. W.
(신용조합옆)

TEL:(B)530—0522
(R)531—4165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HEALTH FOOD 겸함.

한국일보 특집판

癌은 낫는 病이다

여기까지

美환자 45%가 成功的치료

癌의權威 드비타博士에 듣는다

인터페론·單性항체에 期待

肺癌이 가장致命的… 예방은 "禁煙"

女性의 폐암罹患率 높아

豫防·再活에도 눈돌릴때

【로스앤젤레스支社=鄭逸和기자】『암은 확실히 두려운 적으로 남아 있지만 극복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80년말 현재의 통계에서 나타난것같이 미전국 암환자중 45%는 성공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다』 1월26일 캘리포니아대학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2회 암심포지엄에 참석하러 로스앤젤레스에 온 빈센트·드비타 국립암연구소(NCI) 소장은 지난10년간의 암치료자료를 외어가며 미국의 암정복노력은 그만한 보상을 받고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지금까지 투자해온 암정복노력은 확실치는 않으나 전의료 연구비의 20%이상을 차지해온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과학자들은 암이곧 내 정복될것이라는 상당한 이론적 뒷받침을얻고있다. 환자들도 암은 죽는 병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드비타박사는 말하면서 인터페론연구와 단성항체 (mono clonal anti bodies) 개발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암은 종합의술로밖에는 극복할수없을 정도의 복합적 병원체이다. 암은 세포가 붙는 장소에따라 성질이 달라지고 또 그 악성의 정도에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진다. 암종류가 수백가지이기때문에 결국 그치료법도 종류가 많아질수밖에없다.

현재 의학계의 신경이쏠리고있는 인터페론, 단성항체등 면역학분야외에 기존의 약품을 조작하여 효율성이 큰 복합제를 찾는 작업도 맹렬히 진행되고있다.

드비타소장은 기존약품을 조작하여 새약을 만들어낼때 5천번 실험에 한번 정도의 성공작이 나오게 되고 이중 동물실험을 거치고 연방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얻어 대량생산단계에 까지 이르는 것은 열개중 한개정도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5만분의 1의 확률인 셈이다.

시간과 예산만이 문제를 해결해줄수 있다는것이다.

드비타박사는 암의 정복은 치료와 연구도 중요하지만 의학전문분야밖의 예방단계와 암치료후의 재활단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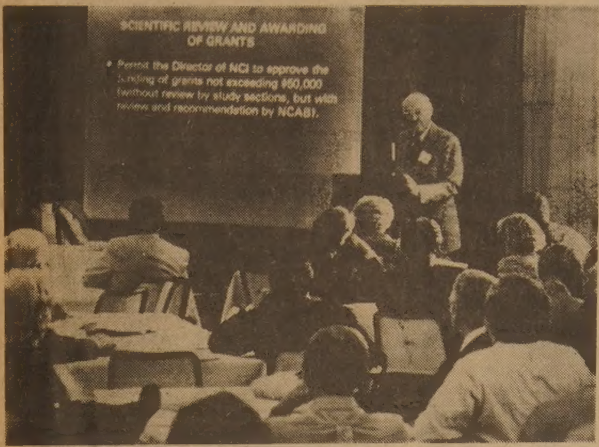
『지난 10년간의 암발생추세를 볼 때 뚜렷한 한가지 특징은 폐암환자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금연은 실험연구보다 중요하다』

1930년 이래의 암발생도표는 자궁암, 유방암, 방광암, 위암, 폐암등 10개 주요암중 유독 폐암하나만 발생률이 올라가고있었다. 여성폐암률은 남자의 경우보다 더욱 급격히 치솟고있다. 『폐암은 모든 암중 치사률이 가장 높다. 일단 폐암에 걸리면살아날 확률은 15%밖에 안된다. 지난25년간의 연구결과 폐암의 85%는 흡연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고 드비타박사는 말하면서 흡연자는 전국에 수없이 조직돼있는 금연운동단체들을 찾으라고 당부했다.

80년 현재 남자암환자중 폐암환자는 22%로 가장높은 암발생률을 차지하고있고 여성의 경우는 유방암 직장암 자궁암 다음인 4번째 높은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드비타NCI소장은 에닐린염색업자와 고무공장 종업원들은 방광암에, 목수 니켈광산업종사자는 관상암에, 그리고 우라늄광산 석면공장 지붕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폐암에 걸리기 쉬운것등 직장과 암과의 관계연구도 상당히 진전됐다고 말하면서 암위험산업분야는 종업원보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암은 저항을 잃어버리면서 친구 직장 심지어 가족까지 잃게 될 위험성이 크다. 드비타박사는 암으로 인한 삶의 좌절을 선고받고 하루 하루를 무한한 감사속에 사는 환자들이 있는가 하면 오랜 투병끝에 암을 이기고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채 재생의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면서 암퇴치를 위한 범사회적인 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6일 캘리포니아대학에서 열린 제 2차 암심포지엄。【LA支社=朴世勳기자】

◇빈센트·드비타博士

◇최신암탐사기CAT스캐너로 찍어낸 부분사진들。

"征服은 시간문제다"

自信넘친 日醫學界

【東京=宋李彬특파원】일본의 刀圭界는 癌정복이 시간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물론 아직까지는 병원체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퇴치하는 특효약이 발견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본의 암치료는 手術요법、化學요법、放射요법、免疫요법등 네가지인데 그중에서 일본의 수술기술은 세계제일로 손꼽힌다。

우선 수술전후에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거의 없고 조기진단기술의 발달로 수술후에 완치율이 높아졌다。특히 위암、자궁암、유암의 경우 조기에 발견되면 99% 완치할수있다。

길이 6㎜정도의 캡슐속에 전자장치를 하여 위나 장의 필요한 부분의 위액을 검출할수있는 예진방법이 발달、1년에 한두번 검진만하면 1백%早期발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주목을받고있는 레이저光線에 의한 無血수술법이 일본에서 특히 발달했다。

레이저 광선은 류머티즘과、관절염、요통등의 치료에 이용됐으나、고밀도 레이저 광선에 의한 메스를 개발、암세포에 照射함으로써 치료하는 방안이 고안됐다。

이밖에도 암冷凍수술법이 발달하여 2期의 환자도 90% 이상 치유가 가능케 됐다。

암세포는 低溫에 약한성질을 이용、液體질소로써 마이너스 1백96도로 얼린다。

종합研究센터 20개소

—美 각종 對癌組織… 활발한 活動

ACS는 전국에 58개支部

캠페인展開·研究자금 支援

【로스앤젤레스支社=鄭逸和기자】암과 싸우기 위해 조직된 미국내의 정부및개인단체들을 꼽으면 수만개가된다고 UCLA종합암센터소장 리처드·스패롤박사는 말했다.

그중 가장 큰단체는 ACS로 전국에 58개지부를 두고 있으며 이58개지부산하에 3천1백30개의 지방회를 구성해 놓고있다.

UCLA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 AACI, NCI등도 전국적인 조직을갖고있는거대한 암투쟁단체. 對癌투쟁은 2가지 방향으로 따 갈라지고 있다.

하나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연구실의 실험투쟁이고 다른하나는 암환자들을 기존의술영역에 끌어들이는 운동.

AACI운동은 말하자면 실험실투쟁중심이고 ACS는 캠페인중심, 그리고 NCI는 전국의 암연구소에 연구자금을 지원하고지방단위로 對癌캠페인을 벌임을 중심으로 한다.

ACS는 지난78년 스탠퍼드대학이 박테리아를 이용한 DNA재배합을 성공해 냈을때 항암체인 인터페론을 DNA조작법을 통해 생산해 보도록 6백80만달러를 흔쾌히 내놓았다.

암치료율 역시 사망자곡선을 훨씬 앞지르는 속도로 상승했다.

ACS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30년대부터 암치료는 성공을 거두어 암환자 5명중 1명이 생명을 건졌으며 40년대에는 4명중 1명이 살아났다.

암치료법은 70년대이전까지만해도 수술과 방사능치료가 전부. 그러나 70년대이후 항암제개발기술과 병행해 수천종의 실험암치료제가 쏟아져 나왔고 이중 일부는 효과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화 됐다.

현재 美식품의약국 (FDA)의 허가를받아낸 암약은 약50종에 이른다.

수술법과 방사선치료도 이미 50년대의 그것과는현격한 차이가 난다.

암전문의들의 집도술도 발달했지만CAT스캐너같은 국소정밀촬영기가 개발되어 불과 1시간이면 암이 감염될수있는 모든 국소의 정밀사진을 토막토막 찍어 이를 근거로 날카로운 집도를 하고 있다.

또 인터페론치료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스탠퍼드대학의 메리간박사는『인터페론 주입으로 암덩어리가 줄어들고 있는것이 밝혀졌다』고 보고했으나 인터페론이 암치료만능이라는 결론은 내리려 하지 않았다.

인터페론연구와 나란히 암연구학회의 촛점을 모으고 있는 분야는 단성항생제개발과 기존개발약의 부작용제거방법.

UCLA부교수 로버트·시거박사는 26일의 심포지엄에서 암세포가 분자구성, 정형구조등에서 정상세포와 분리될수있다고 지적하면서 암세포의 항원을 이용, 암항생제를 만들어 낼수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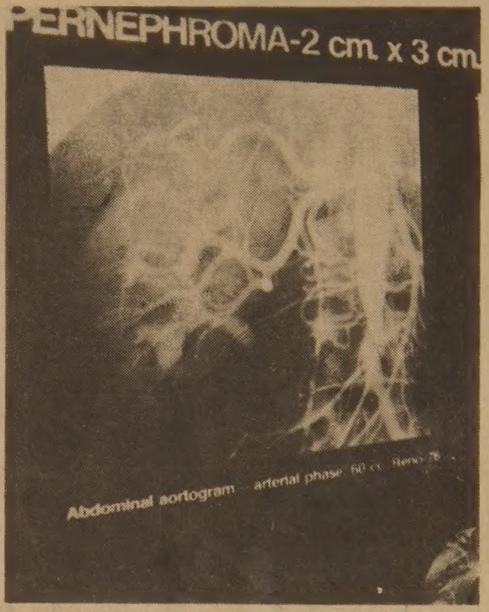
약물치료부작용제거의한 연구는 위스콘신 대학팀에 의해 이뤄졌는데 암환자에게 약물투약과 동시에 마리화나를 병용시켜 효과를 거두었왔다.

현재미국의 암환자들은 대학병원이나 암연구종합센터같은데로가는 대신 시설이 완벽히 갖춰진 지역병원을 이용하면서 담당전문의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

미국의 암전문의 제도가 실시된것은지난73년부터.

LA남쪽 포란스에서 개업하고있는 암전문의 李相默씨는『미국인들의 암에 대한 관념은 많이 달라졌다. 전문의 진단을 받아보지도않고 생존희망을 포기하는 일은없다』라고 말하면서『암의 정복은 사실상 환자의 적극성에서부터 시작되는것』이라고 말했다.

미전국에 널려있는 수많은 암전문치료병원·연구기관·각종캠페인단체등의응집력이 환자들의 적극성과 엮여 인류의 한두터운 장벽을 헐어가고 있다.



◇최신암탐사기 CAT 스캐너로 찍어낸 콩팥부분。【LA支社=朴世勳기자】

환자의勇氣 북돋아

—美國의 對癌作戰 어디까지 왔나

癌정복 2차10個年計劃 세워

自然食에의關心 크게 높아져

【뉴욕=金泰雄특파원】미국의 암정복은 국가사업으로돼있다. 미국상원은 지난 71년12월23일 국가암치료법 (National Cancer Act) 이란 법을 통과시켰으며 백악관에 암전문위원회를 두고 2억3천만달러의 예산을 책정, 對癌작전에 나섰다.

10년이 지난 오늘 그예산은 10억달러가되었고 셋박에없던 종합암연구센터는 이제 20개로 늘어 미국전역을 분담하게 되었다.

1백명밖에 안됐던 암전문의의 수도 2천8백명을 헤아리게 되었으며 전문연구원의 수는 1천8백명이 되었다.

치료법도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해 이제는 암치료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연구를 하게되었다.

『암은 불치의 병이아니다』란 자신이 생긴것이다.

이제는 암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갖는 심리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장애를 사회가 받아주는 문제도 연구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암작전은 ①예방 ②치료 ③연구란 3단계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암정복 세2차 10개년계획의 첫해로 접어든 82년, 순수민간단체로서 암의원인과 예방연구에 주동역을 해온 미국암협회는 인구1백만을 대상으로 4백가지의 질문을 포함한 설문조사를 한다. 여기에는 인원10만이 동원되며 1억달러의 비용을 들이게된다.

이번사업은 암의 원인으로 추정되고있는 환경물질을 식별하고 인간생활의습관을 가려보자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85만5천명이 암에걸려 그중42만명이 목숨을 잃고있다.

담배가 암의 원인이란얘기는 오래된것이지만 암협회와 암연구원은 담배가전체 암사망률의 30%에 달하고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미국남자에게 제일 많은 폐암은 83%가 흡연때문이며 담배는 모든 암의 원인인데다 제일 나쁜 적이라고 하몬드박사는 말했다.

하몬드는 암협회부회장을 역임했고 담배와 암관계를 증명한 암권위자.

국가기관인 암연구원은 작년말에 공표한『세대의 발전』이란 제목에『암연구의 발전 1971~1981』이란 부제의 보고서에서 어린이암과 여자유방암 치료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했다.

1960년대의 어린이 암환자는 생존율 50%를기록하고있는데 80년대에들어 암을이긴 20년전 어린이들이 결혼하고 애를 낳고있다고 동보고서는 기록했다.

포드 대통령의 부인이나 넬슨·록펠러의 부인은 유방암수술을 받은 유명인사들이다. 치료에 성공한 여자들은 유방재생을 위한정형수술을 받고 있다. 유방없는 여자가 아님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암에서 이긴 여자들에게 심리적인안정을 주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다.

피셔박사는 한가지 약이 모든 현대의 암과 모든 환자에게 맞는것같지 않으며 각개인에게 맞는약을 골라 2가지내지 3가지약을 쓰는것이 효과적이란 실험결과가 나오고있다고밝혔다.

이와 함께 對癌작전에는 일상음식도 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행처럼 自然食이 번지고있으며 끼니를 알몬드 콩이나 해바라기씨로 때우거나 화학비료를 안준채소를 먹는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대학의 토머스·주크스 박사는 자연식품도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자연식품은 갖가지 부가제로 수천가지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에대한 표준검사를 아직하고 있지않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다른식품은 검사를 받으나 자연식품은 아직 FDA에서 검사를 하고있지않다는 얘기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63>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숨바꼭질 ⑤⓪

그렇다고 처음부터 수인이를 영영 모른 척 할 마음까지 먹은 건 아니었다。그저 마음의 충격을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한 정도였다。

그러나 그가 정말 필요한 시간은 자기말고도 오목이가 수인입을 알아보는 사람이있나 없나를 확인할수 있는 동안이었다。만일 그런 일가친척이 있어 그에게 제보를 해준다면 그때 가서 금시초문인척 누이를 찾아나서도 늦지는 않을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그런 제보를 해줄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마침 이산가족찾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활발할 때라 수철이의 갸륵한 마음을위해 그런 기사나 광고라면 빠뜨리지않고 훑어보았노라는 사람까지도 누이동생은 이제죽은 셈치라는 위로의 말을 해줄 정도였다。그러나 오목이가 수인임을 알 사람은 천지간에 수철이 하나밖에 없는지도 몰랐다。

오직 자기만이 오목이의정체(正體)를 알고있다는데 자신이 생길수록 그는 오목이를 찾아나서길 망설이게됐다。오목이를 오목인채로 내버려둘들 어떠랴 싶었다。

그런 생각이 처음 떠올랐을 때만해도 스스로도 섬뜩할 정도의 간지(奸智)였다。어떻게 그런생각까지 할수가 있을까 참으로 망측한 심뽀였고、그런 자신이 정떨어져서라도 어떤 변명을 마련하지않으면 안되었다。

며칠을 혼자서 궁리에 궁리를 거듭한 끝에 얻어낸 변명은 누이동생이 몸담고있는 곳이 하필 고아원이기때문이라는 거였다。

그는 새삼스럽게 고아원에 진저리를 쳤다。그렇다면 고아가 고아원 아닌 어디에 있어야한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억지에 실소했지만 그 억지를 철회하진 못했다。

그때 수철이는 이미 결혼해서 아름다운 아내와 귀여운 자식을 두고 있었고、하나 남은 누이동생 수지를 부럽지않게 호강시켜가며 곱게 기르고 있었다。그는 좋은 집안에서 고생 모르고 자라서 그에게 시집와 그의자식을 낳아준 아내를 누구보다도 사랑했다。너무 사랑해서 누이동생이 하나 달린 것도 속으로 미안한데 하나를 더 끌어들이다니、그것도 고아원으로부터、그건 차마 못할 일이었다。가정이라는 지상의 낙원을 그렇게 모독할순 없었다。

당장 저질렀으면 당연하고도 용이했을 일이건만 심사숙고할수록 그 일은 어렵고도 가당찮아졌다。

그는 동생을 모르는 척하는데 양심의가책은 커녕만한 꽃밭을 병충해로부터 지켜야하는 원정(園丁)으로서의 사명감마저 느꼈다。

악(惡)이란 생각보다는、돌발적인 격정이 아니라 용의주도하고도 점진적인 현상이었다。그리고 악의 한결같은 꿈은 위선이었다。

그는 그의 누이동생이 수인임을 망각하고 오목이로행세하고있음을 알고부터 더욱 열심히 수인이란 이름으로동생을 찾는 일을 계속했다。그의 이런 애타는 마음을 못사람에게 나타내서 남의 심금까지 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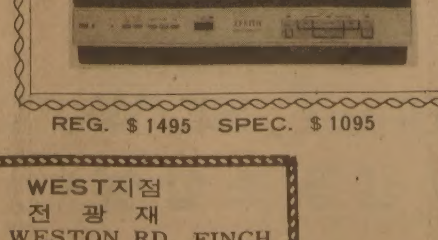
그건 마치 일곱살적의 수지가 동생을 일부러 피난민속에서 놓쳐버리고나서 수인이란 이름으로 목메어 찾아헤매고、다시 식구들앞에서 동생을 잃은 자신을 자책해서 까무러치도록 운 것과도 닮은 간교함이었다。

한사람을 놓고 각각 두개의 이름으로 서로 찾는 일은 마치 평행선처럼 아무리 줄기차게 계속돼도 서로 맞닿을리가 없었다。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미도파백화점 비디오부
연속극,가요,문학,영화,전설…
454 BLOOR ST. W.
536-1692

☆봄철스페샬대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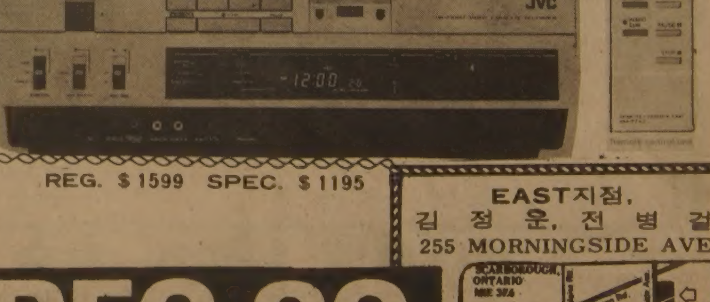
ZENITH


REG. $1495 SPEC. $1095

비데오는 역시 제니스 (BETA), J.V.C (VHS) 입니다

* 14DAYS PROGRAM (14일간 녹음가능)
* HEAD 4개
* REMOTE CONTROL 포함

JVC
Shuttle Search


REG. $1599 SPEC. $1195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아카데미 T.V.& STEREO CO.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282-2820

한국일보 (특집판)

癌은 낫는 病이다

世界최신療法

佛 구스타브·루시研究所

職員2천명·을 예산 8백50억원

細胞직접 죽이는 注射藥 試用

피부암 가장 잘낫고 肺癌은 治癒率 5%에불과

發癌~담배·술 연구의 先頭走者

【파리=金聖佑특파원】파리남쪽 교외의 빌르 쥐프에있는 구스타브·루시 연구소는 프랑스에서 가장큰 암센터이다.

1921년 구스타브·루시라는 의학자가 처음 암전문병원을 세웠고 1930년에 암센터로 발전시킨 것이 오늘에 이르러 80년에는 초현대식시설을갖춘 고층건물을 새로 지었다.

49명의 전문연구원외에 의사등 도합 2천여명이 여기서 일하고있고 6백개의 침대를가진 병원은 작년 한햇동안 1만5천명의 환자를 받았다.

이센터의 82년예산은 5억6천만 프랑(한화 약 8백50억원)에 달한다.

1936년부터 구스타브·루시 연구소와 관계해 오면서 1956년부터 지금까지 26년째 소장으로있는 피에르·드노와 교수는 『우리암센터의 특징은 연구소와 병원이 같이 있으면서 연구원과 임상의가 같은 운영시스팀밑에서 협력체제가 되어있는것이다』라고 말한다.

뿐만아니라 이센터에서는 전문분야끼리의 장벽을 무너뜨려 다른 병원들처럼 외과의, 내과의, 방사능과의가 따로따로 움직이지않고 함께 일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치료를 단순화시키고 새로운치료법을 발견하는데 큰도움을 준다.

프랑스에는 현재 20개의 암센터가 있는데 1945년 드골이 만든 법령에 따라 프랑스의 모든암센터는 다 이와같은운영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매년 10만인구의 도시에 3백30명꼴로 새로운 암환자가 생긴다.

환자3명중 2명이 죽고 1명이 살아남는다.

피에르·드노와 소장은 『우리연구소는 암을 보통병처럼 만들기위해 싸워오고 있다』고 말한다.

프랑스에서는 치유율이 통틀어 평균 33%지만 흔한암중 피부암이 가장 잘낫고 그다음이 유방암, 자궁암이며 폐암같은것은 5%에 그친다.

구스타브·루시연구소가 가장 성과를 자랑하고있는 부문은 발암원인에 대한통계적인 연구다. 특히 담배와술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이연구소가 프랑스에서도 가장 앞서있다. 프랑스 사람에게 담배가 주로 유발시키는 암은 폐암, 기관지암, 인후암, 방광암등이다. 술은 주로 인후암, 식도암을 가져온다.

목수같이 나무일을 하는 사람들은 나무가루를 마시기때문에 인두암에 잘 걸린다는 것도 밝혀졌다.

프랑스에서 폐암이 증가하는것은 담배때문인 것이 틀림없지만 유방암이 느는 것은 까닭을 못찾고있다.

결장암이 부쩍 늘어가는데 이것은 차츰 육류를 많이먹고 채소를 적게먹기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궁암이 감소하는 것은 위생학의 발달때문이 아닌가 짐작된다.

그렇다면 위암이 줄어드는 것은 웬가.

식생활의 변화때문이라고 생각은하고있지만 무슨 음식때문인지를 모른다.

이것이 프랑스 연구원들이 골치를앓는 문제다.

위암이 특히 많이생기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일본이다. 프랑스의 암연구가들은 이 일본을 주목하다가 이민문제에 흥미를가지게되었다. 일본사람들은 미국본토나 해외로 많이간다. 이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첫세대동안에는 위암발생률이 높지만 다음세대부터는 줄어들어 현지사람들과 같아진다.

그나라 음식에 길들자면 시간이 걸린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일본음식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뜨거운차때문이 아닌가, 간을한 생선때문이 아닌가 의심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확실한 증거가없다.

프랑스암연구소가 추적하고있는 또 한가지는 식도암이다. 식도암은 프랑스에서도 브르타뉴지방과 노르망디지방에 유난히 많다. 술이 식도암의 원인이라고 생각되기때문에 이지방 특산인 사과酒가 범인이 아닌가 지목했다.

그러나 증류酒가 없는 카스피海 지방에도 식도암이 많다. 이지역 사람들이 양(羊)젖을 많이 마시기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을의심했다. 그런데 증류酒도 없고 羊젖도없는 남아프리카의 어떤곳에도 식도암이 많이있다. 그래서 다른 의심은 흙속의 어떤 성분이 브르타뉴나 노르망디 지방의 사과속에 들어가고 카스피海 지방의 양이 뜯어먹는 풀속에 들어가고 남아프리카의 다른 식료품에 들어간것이 아닌가하는 가정을 세워놓고 있다.

드노와소장은 『발암물질은 한가지가 단독으로 암을 발생시키는경우는 드물고 어떤 첨가물이있어야할 경우가 많다. 프랑스에 수백만의 끽연인구가 있는데 담배때문에 암으로 죽는사람이 1만6천명뿐인것도 이때문이다』라고 암의 원인에대한 연구에 결론을 내렸다.

드노와소장의 말로는 현재 세계의 어느나라가 특별히 암연구에 앞서있다고 말할수 없다고 한다. 한나라가 조금앞서면 다른 나라들이 금방 뒤따르기 때문에 거의 나란히들 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구스타브·루시연구소가 개발한약품 2가지를 드노와소장은 크게 내세운다.

「엘립티신」과「폴리A-폴리U」라는 약품이다.

「엘립티신」은 5~6년전에 개발된 주사약으로 비슷한것이 지금 세계각국에서 쓰이고 있다.

전혀 새로운 것이 「폴리A-폴리U」인데 1년전부터 쓰기시작했다.

이것은 조직체를 방어하는 특성을 가진 세포핵을 성분으로 한 주사약인데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것이 전혀 새로운 방법이다. 인체 자신이 암과 싸워오는 것을 도와 이기게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유방암환자에게만 투약하여 10%정도의 치유효과를 보고있다.

드노와소장은 이치료방법에 크게 기대를 걸면서 앞으로 세계적으로 매우 주목을 받을것이라고 보고있다.

지금은 구스타브·루시연구소의 병원에서 試用되고 있지만 금년 연말께는 상품화하여 시판될 것이라고 한다.

프랑스정부의 암퇴치 대책은 치료보다는 예방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예방정책은 첫째가 발암성 화공제품등의 단속에의한 환경예방이다. 파리의 파스테르연구소에서는 머리염색약, 염료가 든 음식물, 丸藥등이 시판되기전에 미리 검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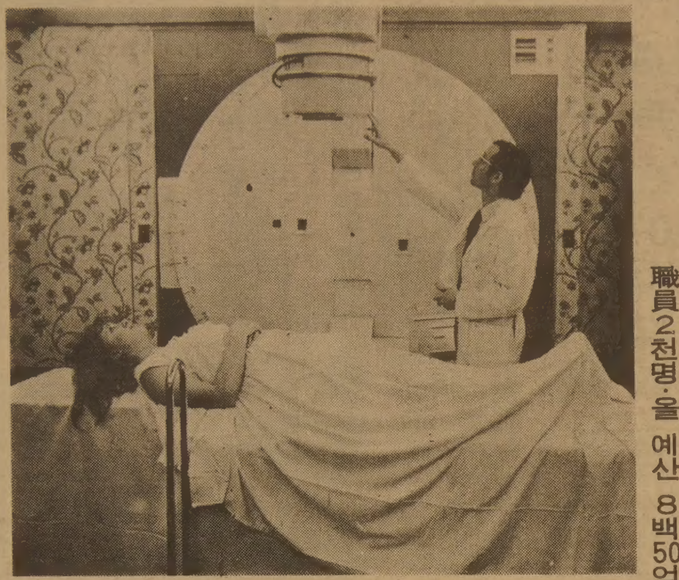
프랑스정부의 두번째 예방대책은 교육에의한 보호다.

3번째는 예방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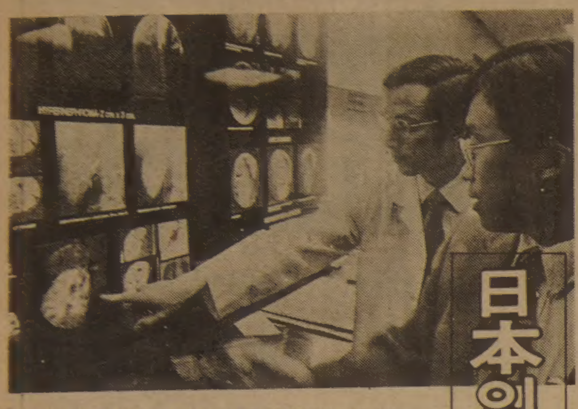
프랑스에서는 암환자를 사회보장제도가 1백% 커버하여 치료비는 일체 무료다.

암은 과연 정복될수있을 것인가? 드노와소장은 말한다. 『사람이 암을 정말 정복할수 있을지 아직은 알수 없다. 다만 한가지 말할수 있는것은 모든 암이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폐암이 좀 나아지고 위암이 좀 나아지고 하는식으로 암이 한가지씩 한가지씩 정복되어 갈것이다』



◇싯가 1백30만달러짜리 최신암탐사기 CAT스캐너。방사선전문의 그린필드씨가 환자를 실험대에 뉘고있다。
【LA支社=朴世勳기자】



◇최신 암탐사기 CAT스캐너를 사용하면 한꺼번에 전신의 국소사진촬영을 할수있다。 그린필드씨는 뇌의사진을 가리키고있다。

日本의 「癌宣告」논쟁

"身邊정리할 時間 있어야" 贊

"환자에 心的충격 안줘야" 反

醫師들 안 알리는것 原則으로

完治 가능땐 허용

【東京=宋孝彬특파원】81년을 고비로 일본은 癌이 腦卒中을 누르고 사망률제1위로 올라섰다.

死因순위를 연도별로 보면 50년까지는 결핵이 사망률의 제1위였으나, 53년에는 제2위, 51년에는 제5위로 뚝 떨어졌고, 80년에는 사망률 10위이내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와는달리 50년에 제2위였던 腦卒中은 51년에제1위로 등장한 이래 계속 수위를 차지했다가 81년에 癌에게 밀려났다.

癌은 도시의 근대화에따른 公害와 스트레스등 發癌환경조성에따라 50년엔 人口10만에 77·4명이었던것이 그뒤 30년이 지난 80년에는 거의두배인 1백39명의 사망자를 냈다.

암연구센터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암에 잘걸리는 연령은 30대후반에서 40대~50~60대 순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이환율이 많다.

현재의 의학으로는 암을 克服하는 길은 早期발견과 早期치료밖에없다.

癌=사망이란 관념이 짙기때문에 환자에 대해 「癌宣告」를 하는것이 좋으냐 숨기는것이 옳으냐로 논란이 일고있다.

79년 어떤 유명한 일본의 高僧(72)이 위에 통증을느껴 병원에 입원했다. 정밀검사 결과 위암이라는것이 판명됐다. 환자가 일본에서 너무유명한 고승이기때문에 의사는 주저하지않고 위암이라고 본인에게 선고했다. 이름난 고승이고 그의나이가 벌써 古稀를 넘겼기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癌宣告」를 한것이다.

그만한 고승이라면, 평소부터 死生觀이 뚜렷이 서 있을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였다. 그 고승은 병상에서 시체로 발견됐다. 「쇼크」死로 판명됐다.

그래서 일본의 의사들은 원칙으로 癌宣告는 하지않는것으로 돼있다.

조기에 발견된 가볍고, 완치가 가능한 환자에 대해서만 몇번이고 자신과희망을 갖도록 다짐한뒤 알려준다.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줘야한다는주장과 조금이라도 심적충격을 환자에 줘서는 안된다는 反對論이 팽팽히 맞서있어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고있다.

80년 가을 朝日신문은3천명을 대상으로 암선고에 대해 앙케트 조사를 실시했다.

『일본에서는대부분의 의사가 암환자에게 본인이 암환자라는것을 알리지 않습니다. 찬성합니까』라는 물음에▲贊成=48%▲反對=37%▲무응답이=15%로서 과반수가까이가 암선고에 반대했다.

『만일 당신 자신이 암에 걸렸다면 알리는것이 좋은가』라는 물음에 ▲알리는것이 좋다=61% ▲알리지 않는것이좋다=34% ▲무응답=5%로서 남이 암에 걸렸을때는 안알리는것이 좋다는 人情派가많으며 자신이 걸렸을때는 거꾸로 암선고에 적극적인 사람이 많음이 드러났다.

『암선고를 받았을때,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 ▲의사에맡긴다=55% ▲무엇이나 하고싶은것을 한다=17% ▲신변정리를한다=15% ▲종교에 의지한다=5% ▲기타무응답=8%로서 과반수이상이 의사에게 의지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암의 선고는 조기발견에의한 치료를 제외 하고는 사망선고와 같기때문에, 특히 종교를 갖고 있지않는 환자에게 의지할수 있는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는것이다. 암선고문제는 결국, 개개인의 경우에 따라 결정할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레이저 無血手術法 각광

早期위암등 완치율 99%

冷凍수술·免疫요법 계속 발전

◇암은 불치의 병이아니다。조기에 발견, 수술과 방사선, 화학및 면역요법을하게되면 대부분의 암은 치료가 가능하다。【사진은 방사선치료장치】

그렇게 하면 암세포는死滅한다. 1960년 미국에서 처음개발됐으나 일본이 이冷凍수술기법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일본의 암치료는 수술과 함께免疫요법이 발달됐다.

면역제로서 주목되고 있는것은「마루야마」(丸山)왁친이다.

일본의대의 피부과 전공의사인 마루야마(丸山千里·71)박사가 결핵환자에는 암환자가 거의없다는 사실에 착안, 결핵균으로부터 抗癌제를 추출해냈다.

그는 71년10월에서 73년까지 1천6백40명에게 이丸山왁친을 주사하여 2백57명으로부터 뚜렷한 抗癌효과를 보았고, 5백15명에게서는 완만한 효과를보았으며 8백68명에게서는 효력이 전혀없다는 임상統計를 얻었다.

丸山왁친이 47%의 抗癌효과가있음을 확인하고 76년가을 製藥許可신청을 제출했으나 81년7월28일 일본中央약사심의회는「有效性에 의문이있다」는 이유로 제약허가를 거부했다.

그러나 丸山왁친의 有效性을믿고 3년이상 사용하고있는 2천9백명이상의 환자를위해 丸山왁친의 제조, 공급은 계속하고있다.

抗癌劑로서 일본의 모찌다(持田)제약과 하야바라(林原)생물화학연구소는 淋巴球에서 糖蛋白물질을 추출, 지금까지의 抗암제의 수십배에이르는 CBF를 개발해냈다.

이 암파괴인자(CBF)는 20~40단위의 극히 소량을 투여해도 암세포의 증식이 50%가량 억제됐으며 정상적인세포는 2만단위를 투여해도 아무런손상이 없었다.

사람의 유암을 흰쥐에이식, 癌에 걸린쥐에 매일40단위의 CBF를 투여한결과 암세포가 절반으로줄어들었다. 이 CBF는 암세포만을 파괴, 억제하고 정상세포에는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는것도 확인됐다.

모찌다(持田)제약은어떻게해서 CBF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파괴하는가에 관해 아직 그 약리효과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으나 CBF가 암세포막에 부착하여 대사작용을저지함으로써 암세포를 死滅시키는것이 아닌가 보고있다.

CBF에대한 임상실험을 금년내에 끝내고 내년에는 제약, 판매될 전망이다. 암정복을 눈앞에 두고있는 느낌이다.

流星의 賦 <335>

李炳注作 李友範畫

風前의 燈火 ⑩

27일, 신립은 척후장(斥候將) 김효원(金孝元)과 안민(安敏)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왜적이 조령을 넘었다는 것이었다. 이 보고를 받고 신립은 성 밖으로 뛰쳐 나갔다. 그리고 밤 중에 돌아와선, 낭설을 띄워 군의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하여 이튿날 아침 김효원, 안민을 목베어 죽였다.

신립은 충주성 서북방 5리허에 있는 탄금대(彈琴臺)에서 배수지진(背水之陣)을 치기로 했다. 그야말로 신립의 작전은 배수지진이었다. 신립은 서쪽과 북쪽을 흐르는 남한강(南漢江)과 달천(達川)을 배후로 하고 동쪽과 남쪽으로 수전(水田)과 습지(濕地)를 앞에 하고 진(陣)을 친 것이다. 이때의 신립의 병력은 약 9천명.

이 전법은 옛날 한신(韓信)이 쓴 적이 있는 이소격중(以少擊衆)의 묘진(妙陣)이라고 하나, 어떤기적을 바라는 자포자기(自暴自棄)의 포진(布陣)이다. 상식으로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전법인것이다.

상대가 정병(精兵)이고 이편이 미훈련병(未訓練兵)일 경우, 이편이 지형과 지물을 교묘히 이용하면 열에 하나의 승산은 있을 수 있겠으나, 평지에서 정공법을 쓸 경우 만에 하나의 승기(勝機)도 잡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적은 28일 정오부터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뒤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적의 진영은 다음과 같은 구성이었다.

중앙대장 소서행장(小西行長) 7천명
우익대장 송포진신(松浦鎭信) 3천명
좌익대장 종의지(宗義智) 5천명
예비대장 유마청신(有馬晴信) 대촌희전(大村喜前) 오도순현(五島純玄) 3천7백명

적의 좌익부대는 달천(達川)을 따라 진격하고 나머지는 충주가도(忠州街道)로 해서 탄금대에 접근해왔다. 이를테면 부채살을 거두로 한 것 같은 포위세(包圍勢)였다.

적의 태세가 공격으로 옮아가려는 순간 신립은 제1진 1천기에게 출격명령을 내렸다. 피아(彼我)가 혼전을 이룬 가운데 제2진 1천기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다음다음으로 출격명령을 내려 적의 예봉을 꺾으려 했으나 다소의 손해를 입혔을 뿐으로 아방(我方)의 손해만이 심대했다.

이윽고 신립은 종사관 김여물과 더불어 마지막의 돌격을 감행하고, 충주목사 이종장, 조방장 변기도 마지막까지 버텼으나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적시누누(積屍累累)하게 강변에 쌓이고 바람에 피비린내가 섞였다.

신립 이하 모든 장수가 다 죽은 가운데 이일만은 어떻게 혈로(血路)를 열어 산중으로 피신했다가 왜병(倭兵) 하나의 목을 베어 꽁무니에 차고 북쪽으로 도망쳤다.

일설에 의하면 탄금대의 전투는 일각(一刻)에 미달한동안 끝났다고 하는데 고래로 이러한 전투란 없었다.

징비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신립은 어찌할바를 모르고 말에 채찍질하여 적진을 뚫으려고 했으나 재차의 시도도 여의치않자 뒤돌아와 강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이에 따라 부하들도 강에 몸을 던졌다. 시체가 강을 덮었다. 김여물도나 종에 죽었다. 이일은 동쪽의 산을 타고 탈주했다…』

이일의 패보에 이은 신립의 패보는 그날 안으로 한성에 전달되었다. 이로부터 한성은 수습할수없는 혼란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美·英·濠洲 연결한 國際퀴즈프로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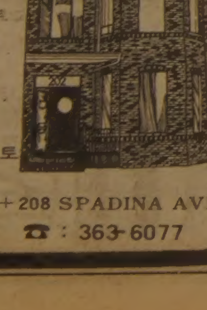
방송위성을 이용하여 美國과 英國, 오스트레일리아를 연결하는 국제퀴즈프로그램이 등장.

「Top of the world」라는 이 퀴즈프로는 영국권 국가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을 찾아내는게 목적이다. 美國의 WPBT국이 제작하고 美國의 PBS, 英國의 메일즈TV, 오스트레일리아의 국영방송에서 중계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상금도 대단해 챔피언(13주동안우승)에겐 1924년형 롤스로이스가 수여되는데 상품의 고가에 따라 문제가 어려워진다. 영어와 라틴어의 관계, 고대영어의 올바른 의미등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고있다. 참여하는 사람은 대학교수, 변호사등이 많다고.

이 국제적 퀴즈프로의 제작비는 주로 英國이 출자하고있는데 한편으로는 무역의 향상을 노리는 PR작전이라고 비평하는 사람도 있다.

털코-트를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푸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스피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 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보험 세탁 스토레이지(및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밍크외 각종 털코-트 쟈켙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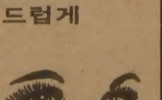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MRS. 전
202+208 SPADINA AVE.
☎ : 363-60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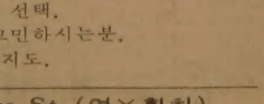
개업인사
김명숙 회계사무소
(Kim's Associates)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TAX시즌에 대비해서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코자 2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사무실을 마련했읍니다. Tax Return, Bookkeeping, Accounting등 제반회계 업무와 세무및 경영상담 등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왕림하시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력 : 1974년 이화여대 경영학과 졸업
Algoma 대학교 회계학 전공
5년간의 C. A. Firm근무
현재 C. G. A. Undergraduate(5th Level)
484 BLOOR ST. W.
(강찬영변호사 사무실내)
☎ : B(537-3171 R(669-2710

Young—Sook's Jewellery
보석상 개업특별봉사
오는3월1일부터 다운타운에 보석상을 개업합니다. 교민 여러분께 최저 가격으로 특별봉사코자 하오니 꼭 한번 들려 주시거나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금·은 취급
*품질보장
*뉴 디자인으로 마음에 맞게 해드림.
*옛날보석 개조 또는 교환 매매.
*보증서 발행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First·Toronto Jewellery Exchange
Booth No. 10—No. 11
215 Yonge St.
(영×킨)

Annie's Beauty Care Center
(Hair Wizards)
♥여성의 회소식♥
美의센타 탄생
*최신식 장비구입
*여드름 치료
*잔주름 제거
*노화방지
*살결을 탄력있고 부드럽게
*매니큐-패티큐





*불란서 최고급화장품 사용하여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
*털이 많아 고민하시는분.
*바른화장법 지도.
6093 Yonge St. (영×휜치)
Yonge 센타 플라자 내
☎ : 223-7884~5 Mrs. 리

한국일보 (특집판)

癌은 낫는 病이다

放射線치료로 얻은 새生命

惡性 뇌종양 극복한 女教師의 闘病記

머리가 쥐어짜는 것처럼 아파온다. 감기증세 비슷하다. 학교 (여성여중) 양호실에 찾아가 감기약을얻어먹었으나 차도가 없다. 동료교사의 강권으로 삼선교 S병원에 가보았다.

의사는 직업 (교사) 때문에 신경을 많이써서 그렇다며 약을먹으면 바로진정될 거라고 얘기한다. 약을 먹었으나 집에오는 도중에 토하고 말았다. 다른 병원을 찾았다. X선검사와 뇌파검사로 약간의 이상을 발견했으나 의사는신경쇠약일 거라며 영양주사를 놓아준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기전에 토하고 말았다.

아무래도 안되겠다. 이번에는 가족들과 협의하여 한약방을 찾았다. 그러나 7만원이나주고 지어온 한약도 별다른효과가 없었다. 먹기만하면 토하고만다. 머리가 뻐개질듯이 아프다.

이제는 교단에서도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 헛소리를 하고 정신을 잃기가 일쑤다. 꼭 정신병자 같았다는게 동료교사들의후일담. 교감선생님과 동료교사들의 부축을 받아 서울大병원으로 실려갔다.

곧바로 정신병동에 입원하고 말았다. 나는 그때부터 거의 의식을 차리지 못했다. 다만 정신병환자들이 그렇게 무서웠다는 기억밖에 없다. 『간첩 잡으러 왔지. 너,간첩이지』 환자들이 욱박지르던 말이희미하게 기억날 뿐이다.

정신병동에 입원해있으면서 종합진단을 받았다. 악성뇌종양. 환부가 나쁜 곳에 있어서 수술해도 자신없다는 담당의사의 진단. 말로만 들어왔던『사형선고』가 나에게 떨어진것이다. 그때에도 나는 의식이 없었다.

가족들은 거의 포기했던 것같다. 우리집은 3代째 내려온 기독교가정. 아버지는 목사다.

따라서 우리는 간구한기도로 불치의 병이 나았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어왔다. 가족들은『기왕 죽을바에야 마지막으로「믿음」을 통해 고쳐보자』고 작정했던것같다. 그래서 담당의사와 약간의 트러블이 생겼고 결국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기게됐다. 세브란스병원은 '믿음도 좋'하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것 같다.

컴퓨터진단결과는 서울大와 똑같았다. 그때가 80년8월초순. 한여름에 주치의 李揆彰박사님의 집도로 6시간에 걸친 뇌수술을받았다. 수술전에 머리를 깍은 기억밖에는 없다. 수술결과는 좋았으나 위치가좋지 못해서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게 담당의사의 말이었다. 가족들은 수술이 성공적이라는 말에위로는 받았으나 소생하기어렵다고 믿었던 것같다.

회복실에서 이틀동안이나 누워 있다가 의식이 회복됐다고 한다. 정신이 드는 순간『춥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장로님이 눈에 들어왔다. 아, 아직 살아서 주님을 뵙게되는구나. 다시 살려준 주님께 끝없는 기도를 올렸다.

입원실로 옮겨져 10일이 지났다. 그러나 차도는 없었던 것같다. 20여일만에퇴원하고 말았다. 그때 누군가 방사선치료를 권유했다고 했으나 가족들은『믿음에 매달려보자』며 서둘러서 집에 돌아오고말았다. 집에 돌아와선 완전히정신병자처럼 행동했다는게 가족들의 후문. 횡설수설함은 물론, 아무거나 주워먹고 화장실 드나들기에바빴다는 것이다.

퇴원후 20일만에 재발됐다.「시체」처럼 실려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웃사람들은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곤 생각지도 않았다고 한다.「살아있는 송장」이었으니까.

姜貞玉

재수술을 받을 수도 없었다. 결국 방사선치료로도 완치될 수 있다는 암센터 원장 金炳洙박사의 권유로 방사선치료를받았다. 나는 방사선치료를 받기시작한지 4일후에야 정신을 차렸다. 계속해서 방사선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차츰 건강상태가 나아졌다. 2주일후에는 일어서서 걸을 수도 있게되었다.

입원해있는 동안 동료교사들이 찾아와 기도해주었다. 예배시간만 되면 나는 즐겁다. 나를 살려주신 하느님과 만나는 기회이기때문이다.『환란을 당할 때는 언제든 기뻐하라』—하느님의 복음을 마음속에새기며 죽음의 악마와 싸워나갔다. 금도 풀무 속에서 단련되듯이 영적으로 단련하는 인내를 키워나갔다. 교인들이 밤잠도 자지않고 곁에서 기도를 했고 나는 커다란 위안을얻었다.

방사선 치료는「성령의 불」을 받는것과 똑같았다. 내게는 방사선으로 느껴지지않았고 그시간에만은 고통도없고 편안하게 느껴졌다. 2주후에는 통원치료를 받을정도로 좋아졌다. 이제는 활동이 자유롭다. 한달에 한번씩 약물치료만 받고있다.

이제「새생명」을 얻었다.「의술」과「신앙」이 합쳐져서 기적이 나타난것이다. 환자는 병원의 지시대로 해야한다는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믿음또한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도록 기도해준 주위사람들에게 감사한다.

나는 이제 덤으로사는인생이다. 주님께서 새생명을 주신것이다. 남은 인생을 주님께바쳐서「주의 일」(선교)에 전념해야 겠다.

단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19년2개월간의교직에서 떠난것. 의사선생님은 학교에 다시 나가라고 권유하고있지만 내가 그전만 못해 그만두고 말았다. 지금도 천진스런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또 相運 (18) 이에게도 엄마로서 못할 짓을 한 것같다. 충격으로 1년동안 학교를 쉰 것이다. 이제는 열심히 공부하고있다. 소망대로 공과대학에 들어가는것이 엄마의 소박한 꿈이다.

◇악성뇌종양으로 한때 사형선고를받아 거의 포기상태였던 姜貞玉여사가 방사선치료로 완쾌되어 활짝 웃는모습。

뇌수술40일…再發 거의포기
勇氣 꺾이지않은 信仰의힘

"抗癌劑병용 4週로 큰效果
完治된셈…再就業도 권유"

김병수박사 진단

姜貞玉씨 (44)의 정확한 병명은 악성임파선암이었다. 컴퓨터진단결과 뇌중심부에 종양이생겨 신경외과적인 수술로는 완전절제가 힘들었다. 더구나 姜씨의 경우 80년6월에 1차뇌수술을 받은뒤 20일만에 재발하여 수술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항암제와 방사선치료를 하기로 했다.

암종류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르다. 악성임파선암은 항암제의 투여와 방사선치료에 예민하다. 척추속으로 항암제를 투여하고 매일 방사선치료를 거쳤다.

놀랄만한 효과가 나타났다. 정신병자처럼 의식이 없던 환자가 1주후에 의식을 찾았고2주후에는 통원치료가 가능한정도로 차도가 있었다. 4주후에는 방사선치료도 끝냈다. 컴퓨터 진단결과 암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재발을 막기 위해 한달에 1번씩 약물치료만을 하고 있다.

악성임파선암은 암이 없어진 다음 1년이 지나면 완치를 예견할 수 있다. 1년6개월~2년이 지나도 재발이 없으면 완치되었다고 얘기할수 있다. 姜씨의 경우, 암이 없어진지 1년5개월이 되어간다. 이제는 완치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직장에 나가라고 권유하기로 했다.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라

——암 追放을위한 예방食品과 식생활가이드

하루10g의 錠劑복용 特效
밀감·토마토·양배추·호박등에 含有

암의 정체는 확실하지가 않다. 그러나 암은 식생활환경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음은 틀림 없다. 그것은 인간의 오랜 경험과 최근의 과학적 실험을 통해 뒷받침 되고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생활에서 암과 거리가먼 것들을 거꾸로 가까이해야 할것이며 암과 가까운 물질을 멀리해야 할것이다. 그러한 식품과 물질을 알아본다.

암예방효과가 있는 영양소로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것은 비타민C다. 이는 예방은 물론 치료에서도 큰 효과가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에서 유행하고있는 「비타민C요법」이다.

이 요법을 적극 권장하고있는 사람은 53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라이너스·C·포어링박사이다. 현재 포어링그룹에 의해 진행되고있는 이 요법은 날기환자치료를 포함, 뛰어난 임상효과를 보이고 있다.

포어링박사는 비타민C에 대해 두가지의 이론적 뒷받침을 갖고있다. 하나는 대량의 비타민C가 사람몸안 세포에 존재하는 효소 히아루로니터제라는 저해물질의 생산을 촉진한다는것이다. 이효소는 악성종양 (암)에 의해 방출되는 히아루론산을 공격한다. 히아루론산이 많으면 조직은 취약화되고 종양의 증식은 가능하게 된다.

또하나는 대량의 비타민C가 세포사이 시멘트물질에 포함된 콜라겐섬유의 합성을 왕성하게해 시멘트물질을 튼튼하게 한다는것이다. 이때문에 정상조직에서의 암증식을 방해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비타민C는 인간이 체내에서 만들어내지 못한다. 섭취해야만 한다. 포어링박사는 「치료를 위해서는」하루 10g을 섭취해야한다고 말한다. 10g 이라면 오린지주스 1배컵 (2백㎖짜리)분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 그대신 정제 (10알)로 먹기를 권한다.

포어링박사에 의하면 적당량이외의 비타민은 오줌으로 배설된다는 과거의설은 틀린말이다.

암치료는 물론 예방에서 비타민C는 그처럼 중요하다. 비타민C를 다량 함유한 식품은 밀감등 柑橘類, 토마토, 딸기, 양배추, 호박등이다. 단 비타민C는 열에 약하기때문에 요리에 신경을 써야한다.

비타민A도 암예방효과가 뛰어난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연구기관 의료기관등에서 동물실험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실험결과는 비타민A가 암예방에 「어떤작용」을 하고있음을 확실히 나타내고있다.

비타민A의 대표적식품은 홍당무다. 홍당무는 실험결과 날것보다 기름에 한 요리로나 즙으로 먹는 편이 체내흡수력이 강한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동물의 간, 뱀장어등에도 들어있다.

된장도 대표적인 암예방식품이다. 지금은 구문이 돼버렸지만 작년의 건강정보로서는 큰뉴스였다.

일본 국립암연구센터가 최초로 이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냈다. 이연구소의 히라야마 (平山雄) 疫學부장은『콩단백질에 제암물질이 있다』는 미국의연구결과를 계기로 일본인26만5천명을 대상으로 된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된장을 잘먹는 사람은 위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수치로 나타났다. 그이유는 콩속에 항암작용을하는 성분이 있고, 영양도 풍부해 몸의 저항력을 키우기때문이다.

최근에 밝혀진 물질로 리그닌이란것이 있다. 동물실험에서 암세포를 축소시켜 뛰어난 항암효과를나타냈다. 식품중 주로 무우 우엉과같은 根菜類에 리그닌이 다량 함유되어있다. 리그닌은 특히 잘게부서질때 많은양이 뛰어나오므로 되도록이면 잘게써는요리를 해야한다. 무우생채는 좋은 요리방법이다.

『해조를 생식하는 사람들이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이 적다』는 조사보고는 많다. 마찬가지로 해조는 암에대해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장 잘알려진 식품은 다시마다. 지난 81년 일본암학회총회에서 바로 이「다시마의 제암효과」가 보고돼 큰반향을 일으켰다. 北里大의 야마모토·이찌로(山本一郎)교수는생쥐에게 암세포를 이식시킨뒤 환부에 다시마의 에센스를 투여했다. 35일째 해부해보니 90%이상 생쥐의 암세포성장은 저지됐다.

다시마이외에 미역, 김도 암예방에 좋은 식품이다. 특히 푸른김(靑苔)은 비타민A와 함께 메틸메티오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니코틴의 해독작용에 효과가 있어 2중의항암효과를갖는다. 전복등조개류에도항암요소가 있는것으로보고되고 있다. 연구기관에서 실험중에 있다. 전복은 예로부터 중국한방에 종양치료제로 쓰여왔다. 만약 조개류를 요리할때는 반드시 끓인물도 버리지않고먹도록하는것이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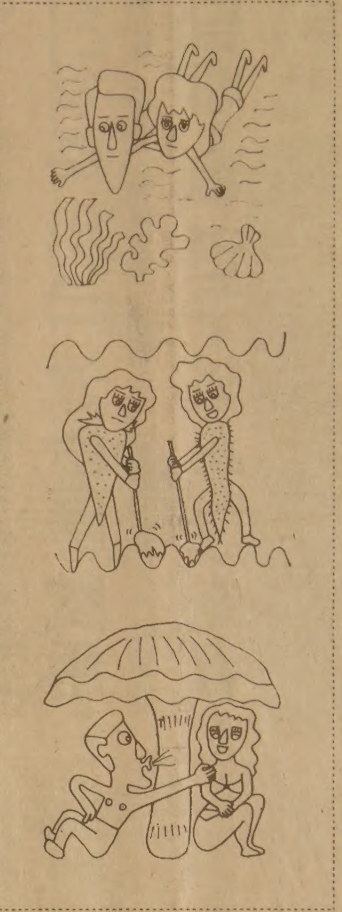
버섯은새항암물질인인터페론생산을 촉진하는 인터페론誘起물질을 다량함유하고있다. 인터페론은 체내세포자체내에서도 생산되지만 미량이므로 침입해오는 암세포와 적절히 대적해서 싸울수 없다. 따라서 버섯을 많이 먹으면 체내인터페론 생산에 도움이 되며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있다.

우유는 위암예방에 좋은 식품이다. 그증거로 우유를 많이 마시는 서구인들에게 위암이 적다. 비타민A가 많은것도 그이유의하나다. 우유에 있는 비타민B2는 특히 간장암에 효과가있는것으로알려졌다.

요구르트는 장암에 효과가 있는것으로 보인다. 장내의 유해물질을 유산균이 깨끗이 세척해주는 역할을 하기때문이다. 만병에 좋다는 마늘도 암예방효과를 갖는다. 독특한 냄새를 풍기는 마늘속의 아리신이란 물질을 실험쥐에 주사한결과 쉽게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얻어냈다. 참깨 들깨도 항암요소를 갖고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예방을 위해 멀리해야할 물질·食品

발암 물질	함유된 물질및 식품
아프라토키신 B_1	곰팡이
벤즈 피렌	담배연기 식품불순물
니트로스아민	腸內에서 세균이생성
트리프 P_1P_2	불고기 생선구이의 탄부분
AF 2	살균제
새 푸 롤	오린지
고사리 성분	고사리
과산화 수소	살균제
올 아 민	식용황색 색소
카 페 인	코피 홍차
트리할로메탄	수도물중 생성
DDT	살충제
BHC	농약
DES	호르몬제
마이토마이신	制암제
페 나 세 틴	진통해열제
아미노 피린	진통해열제
우 레 탄	주사액
2·4다이아미노 아니솔	머리염색약
벤 지 진	염료재료
포름알데히드	플래스틱 재료
PCB	열매개체
클로로 포름	용해제
중크롬산칼리	도금제



마늘·된장 胃癌에좋아
우유·요구르트 腸癌예방
다시마등 해조류 生食을
동물肝·뱀장어도 效力

한국일보 詩壇

봄을 맞으며

金年均

그리웠다 이것아
밤이면 문틈으로 새어오는
바람이 할큰 [illegible]의 소리도
네가 오는 파도소리로 들리고,
내 몸은 너의 바다에 갑싸인다。
그리웠다 이것아
때로는 서방찾아 애타는 아낙네처럼
내가 쌓아온 세상의 지식이、
땀흘려 벌어놓은 천박한 일이

그러나 너로 하여금
빗물인양 꾸중인양 떨어져 가면
세상의 거짓들도 떨어져 가고、
네가 지은 햇볕에 봄을 씻는다。
어제의 어둠들도 모두 씻는다。
그리웠다 이것아
하늘이 울고있는 겨울도 지나
새로운 동우리에 불을 피우는
온화한 것아。

해외 바둑화제

棋聖戰 3대3비겨 마지막 한판 남겨
日 최고의賞金２千萬엔 棋界떠들썩
藤澤秀行·도전자林海峰…逆戰거듭

日本棋界가 근래 보기드문 큰대국으로 들떠있다. 17~18양일간 金澤市의 뉴그랜드호텔에서 3대3으로 막판까지 이르른 제6기 棋聖戰의 최종국 (제7국)이 열리고 있는것.

요미우리 (讀賣) 신문이 주최하는 棋聖戰은 일본최대규모의 상금 (2천만엔·한화6천만원)만으로도 가장 관심을 끄는 기전.

그런데 이번마지막 한局만으로 이타이틀의 주인이 결정될 판이어서 박진감을 더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棋聖戰이 막판에까지몰린 적은없었다.

후지사와 (藤澤秀行) 棋聖과 도전자인 林海峰9단이 벌이고있는 제6기棋聖戰은 처음부터 역전과 재역전의 양상을 띠어 팬들을 열광시켰다.

지난 1월13、14양일간 미야자끼 (宮崎)에서 열린 제1국에서는 林海峰9단이 이겼으나 1월27、28일 삿뽀로에서 열전제2국과 2월3、4일 愛知縣犬山市에서 열린 제3국에서는 후지사와가 이겨 2대1로 앞섰다.

그러나 林海峰9단은 2월17、18일 和歌山縣 白濱온천에서 열린 제4국과 이달24、25일 靜岡縣 淸水市에서 열린 제5국에서 이겨 3대2로재역전시켰다.

바둑팬들은 지난5년동안 가볍게 타이틀을 방어해온 후지사와棋聖이 드디어 타이틀을 잃게되는가했으나 지난 10·11일 神戶에서 열린 제6국에서 2백82수만에 3집반을 이겨3대3의 타이스코어를 이루었다.

이렇게되자 바둑팬들은 棋聖位의 향방을 점치기에 여념이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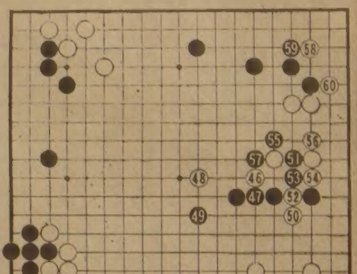
후지사와棋聖의 팬들은 「棋聖位는 후지사와」라는 신화를 믿고 그가 타이틀을 방어해줄것을 기대하고 있다. 藤澤秀行棋聖은 이틀난 술꾼답게 호방한 기풍을 자랑하여 팬들이 많은데다 다른 棋戰은 거들떠보지않은채 棋聖戰에만 온힘을 쏟아 한층「괴짜棋士」로서의 매력을 풍기고 있다.

그의 팬들은 이번의 棋聖戰이 역전과 재역전의 양상을 띠었으니 그 순서로도 후지사와 棋聖이 이길것이라고 희망적인 관측을 하고있다.

그러나 도전자 林海峰9단의 승리를 점치는 사람들도 이에 못지않다. 이들은 한때 日本棋界의 1인자였다가 지난 수년간 슬럼프에 빠진 林9단이 지난날의 영광을 되찾을것으로 기대하고있다. 林9단은 이번 도전자결정권에서 趙治勳名人을 반집차로 이긴 고바야시 (小林光一)9단을 2대0으로 가볍게 꺾고 올라온등 호조를보였다. 【梁平기자】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5局 第4譜 46~60 (각5시간 덤5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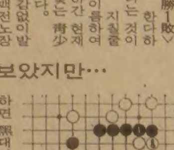
白 (4段) 姜 勳 〈3勝0敗〉
黑 (7段) 河 燦 錫 〈2勝1敗〉

姜4단의 무서운 공격력은 한다하는 강호들도 애를먹는다는 것이 대다수棋士의 평인데 겸하여 지칠줄 모르는 끈기가 놀랍다. 또이름하여 逆轉의名手라고나 할까. 여하간 현재 曺薰鉉·徐奉洙의 뒤를 바짝쫓는 靑少氣鋭派의 선봉장임은 분명하다.

이바둑에서도 그런면이 유감없이발휘되는데 특히 본보에서는 백전노장인 河7단을 궁지에 몰아넣고 기고만장이다. 白46에서 개시한 총공격은 黑49로 달려나와 일단 탈출한 꼴인데도 姜4단은 추격의 손길을 멈추지않는다. 白50에, 들여다본 수가 맹랑하여 河7단은 15분을 고심끝에 黑51로 끼웠다. 맥점이다.

그러나 이경우는 白52이하 56까지 교환되어 黑의 손해가컸다. 원래「들여다보면 잇는것이 상식」이다. 따라서 黑51은 즉시 참고도처럼 黑1로 이어야 한다. 이단지정은 白2이하 8을 당하면 黑대마의 활로에 자신이 없어서 계속 괴로운싸움을 겪어야 한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들여다 보았지만…



비록 그러나 이런곳은 승부를 떠나 참고도의 黑1처럼 저항해야 되지않을까. 거듭 말하지만 이곳에서 입은 손해가 너무도 큰뿐 아니라, 우변이 강화된 白에게 58의 침입에서 60까지 당해서는 손해가 가중된 느낌. 다만 전체형세는 이제부터이니 黑의 분발이 기대되는 장면이다. 【一凡】

김인규회계사무소
개 업 안 내

지난 7년 동안 해오던 회계업무를 더욱 충실히하기 위하여 아래장소에 1월1일부터 사무소를 개업하였읍니다.

Computer, Xerox등을 마련하여 편의를 도모코자 하오니 여러분의 사무실로 아시고 배전의 애호와 편달을 바랍니다.

ACCOUNTING OFF. I. K KIM, RIA
501 Yonge St. Suite 207(Yonge & College)
Toronto, Ont.
☎ : 960－5736(B) 844－0178(R)

약력 : 1964년 서울상대졸업
1975년 RCA RIA
1981년까지 12년간 카나다제조업체에 Accountant, Controller로 근무

1982년 1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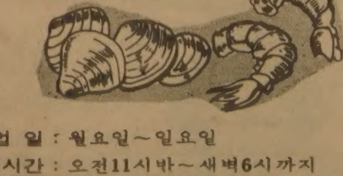
공 인 회 계 사
김 인 규 배

海記飯店
HOI KEE REST.

— 싱싱하고 맛있는 —
달팽이 요리, 게 요리,
가재 요리, 조개 요리

한국인의 입맛에 꼭 맞는 진미 중국요리
가게가 끝나신후 꼭 들려 주세요
새벽6시까지 영업합니다

※ 이 광고를 갖고오십시오. 1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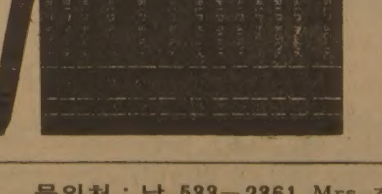


영 업 일 : 월요일～일요일
영업시간 : 오전11시반～새벽6시까지
133 DUNDAS ST. W TEL. 977－3441
海 記 飯 店

WORLD BOOK—
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있는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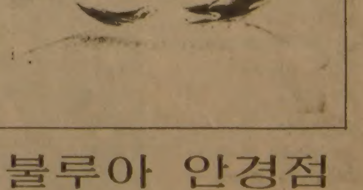
문의처 : 낮 533－2361 Mrs. 김
밤 242－5774

드디어
콘텍렌즈 취급!

금번 불루어 안경점에서는 콘텍렌즈부를 증설하고 교민에 한하여 특별 세일코자 합니다

오랜 경험과 기술로써 교민을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애용을 바랍니다

특별세일기간 : 82년4월말까지



불루아 안경점
주소 : 635 BLOOR.ST.W.
전화 : 531－2236

營農자금 회수싸고 물의 利子 초과징수 還拂소동

金利내렸는데 종전利率적용 單協마다 20~30件씩 변상

全南지역

농협이 농민들에게 빌려준 일반자금과 각종 영농자금을 회수하면서 지난해 3차례에걸쳐 인하된 금리를 적용치않고 종전이율을 그대로 적용, 이자를 초과징수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같은현상은 농협단위조합 직원들이 이자를계산할때 인하금리적용에따르는 시차에 착오를 일으켜 생긴것으로 일부지방에서 물의가생기자 농협중앙회가 17일 초과징수분을 모두 되돌려주도록지시까지했다.

農協中央會 뒤늦게 調査 "돌려주라"

【光州·錦城·長興】 농협全南도지회 산하2백46개 단협에서는 지난해말 도내 농민들로부터 일반자금등 각종영농자금6백50여억원을 회수하면서 지난해11월과 12월사이 3차례에 걸쳐 금리가 인하됐는데도 전체회수건수의 75%에 대해 인하된 이율을 적용하지않고 대출당시의 금리를 그대로 적용해 농민들로부터 1억6천여만원을 초과회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도내 일부 농가에서 농협에 문의해와 농협이 자체조사한 결과 밝혀졌는데 도내 각 단협들이 평균20~30건씩 이같은 오류를 범한것으로 알려졌다.

羅州郡지부의 경우 관내14개 단협에서 4백여건의 착오를 범해 8백여만원을초과회수했으며 長興郡지부도 관내9개단협이 1백여건씩 착오를 일으켜 더받아 들인 이자를 농가에 환불조치했다.

농협이 이처럼 각종영농자금회수에 착오를 일으키고있는것은 일선단협에 근무하는 실무직원들이 대부분 상업계통이 아닌 농고나 인문고출신이어서 금융업무에대한 실무능력이 부족하기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농협도지회 관계자는 17일 『직원들의 잘못으로 이같은 일이 빚어져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지않고 더받아들인 이자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농가에 환불조치시켰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담당직원들에게 실무교육을 철저히 시켜 이같은 착오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하겠다』고 말했다.

은행대출금리는 지난해 11월9일과 11월30일、12월29일등 3차례에걸쳐 각각 1%씩 모두 3%가 인하됐는데 농협일반대출도 은행금리와같이적용시킨다.【聯】

◇果川에 새바람…「복덕방앞」정류장도

정부 제2종합청사와 남서울대공원 계획등으로 부동산 붐이 일자 果川읍내에 복덕방이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자 그앞 버스정류장의 이름마저 「복덕방앞」이라했다. 정부의 6개부처가 옮긴뒤 그이름이 남아있을지 궁금하다.【17日 하오 果川읍내에서 崔東完기자찍음】

政府米 千가마 훔쳐

3명구속 羅州등 7郡13개창고 털어

속보=지난11일 전남康津郡七良面 농협단위조합에 보관중인 정부양곡 1백여가마를 훔쳐팔아온 사실이 드러나 구속된 田應洙씨(29·전남長興郡永田里398)등 3명이 이사건외에도 지난1년동안 도내13개 양곡창고에서 모두1천3백여가마의 정부양곡을 훔쳐판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16일과 17일 羅州郡文平面玉堂里 文平농협단위조합창고에서 2차례에 걸쳐 양곡 2백30가마(싯가5백22만원상당)를 훔친것을 비롯, 지난 한햇동안 羅州、咸平、昇州、務安、寶城、康津등 도내 7개郡 5개농협단위조합과 8개 개인소유 정부양곡보관창고 13개 창고에서 양곡을 상대로 1천3백여가마(싯가2천8백만원)의 정부양곡을 훔쳐팔아왔다는 것이다.【長興=聯】

新羅시대유물 발굴 安東발두렁서 4點

경북安東郡豊山邑晩雲2洞1106 발두렁에서 통일新羅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장경호 3점과 방추(紡錘)1점이 발굴됐다.

이마을 姜明洙씨(45)가 16일하오 발두렁의 잡초를 태우기위해 풀을베다 흙속에 묻혀있는 장경호3점과 방추1점을 발굴、군공보실에 신고했다.

발굴된 장경호가운데 큰것은 높이25cm、주둥이지름16.5cm、둘레102cm이며 나머지 2점은 이것보다 높이가 5~6cm가 작은것들이다.

물레의 가락인 방추는 높이2cm、지름4cm의 원형으로된것인데 한가운데 구멍이뚫려있다.【安東=聯】

서울大病院 간부 2명辭表수리

서울大병원 金英均병원장직무대리는 감사원감사와 관련, 사표를 냈던 高昌舜 제2진료부원장과 申英秀 기획관리실장등 2명의 사표를 15일자로 수리했다.

教師봉급…警備員 자리비워

5백만원든 돈가방 農協구내서 도난

17일 상오11시10분께 전북群山상고 고용인 曺甫日씨(51)가 群山市中央路2街 농협沃溝郡지부에서 44명의 교사봉급과 일반직원봉급을 인출하기위해 5백여만원이 들어있는 돈가방을 안내석에놓고 기다리다 잃어버렸다.

曺씨는 이날 미리인출한 일반직원 7명의 봉급 3백45만원과 이날상오 10시30분께 群山市中央路3街 한일은행 群山지점에서 인출한 교사들의 연구비 1백83만원등 모두 5백28만여원이 들어있는 돈가방을 안내석에 놓고 역시 교원봉급을 인출하기위해 온 群山여중 고용원 鞠龍淳씨(52)와 5분정도 이야기하다 돈가방을 잃어버렸다.

이날 농협沃溝郡지부는 群山·沃溝지방의 65개 초·중·고교직원들의 봉급11억6천만원을 인출하기위해 각급학교 서무과직원들로 만원을 이루었으며 사건이 발생한시간에는 경비원인 李炯義씨(50)마저 한국전력 全州지점에 자금수령하러가 경비원은 아무도 없었다.

경찰은 사건발생시간인 상오11시10분까지 농협을찾은 고객명단을 확보, 전과자등의 조회를하는한편 대낮에 범행한것으로 봐 대담한 치기배전과자들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있다.【聯】

새商品

스테인리스 욕조

○…스테인리스로만든 욕조가 새로 개발돼 선을 보였다. 주식회사오리표 싱크가 내놓은스테인리스욕조는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재질로 만든 욕조보다 견고하고 수명이길다는 점이 가장 큰특징. 이밖에도열보온이잘되고 감촉이 부드러우며세척이 간단한 것등을 장점으로 들수있다. 규격과 형태가 다양하고 설치가 간편하다고. (㉜1191~7)

문방구에 강도 노인찔러 失明

16일 하오5시30분께 서울九老區 禿山洞 산60의47 정일문방구(주인 金正錫·47)에 강도가 들어 혼자 가게를 지키던 金씨의 아버지 金陸龍씨(66)의 얼굴을 과도로 마구찔러 왼쪽눈을 실명시키고 금고속에서 현금 4만원을 털어 달아났다.

金씨에 의하면 25세가량의 청년이 이력서용지 10장을사간 잠시후 전화를 걸어 『주인계시냐』고 물어 『혼자있다』고 대답하자 3분후 이력서를 사간청년이 다시 들어와 과도로 얼굴과 눈을 마구 찌르고 부엌으로 몰아넣은후 금고속에서 돈을 털어 달아났다는 것.

변호사 李愚益옹

제3대 법무장관을 지낸 변호사 李愚益옹(사진)이 16일상오2시15분경 경북漆谷郡枝川面新洞208향리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93세. 발인은 22일 상오10시, 장지는 漆谷郡若木面 南溪洞 선영. 연락처는 大邱⑬4018、경북枝川5번、서울㉟7322.

실종54일… 4代獨子 變屍로

怪電話 70차례 유괴殺人 가능성도

◇변사체로 발견된 仁煥군

서울道峰區孔陵1洞573의2 金東一씨(35·회사원)의 4대독자 仁煥군(4·본보2월7일자11면)이 실종54일만에 변시체로발견돼 경찰이 수사에나섰다.

仁煥군은 지난1월21일 하오2시쯤 어린이 놀이터로 놀러가다며 집을나간뒤 실종됐었는데 15일하오3시30분쯤 서울道峰區月溪2洞 月溪아파트앞 月陵川둑에서 3백m 떨어진 하류(수심1m) 폐수속에서 익사체로발견됐다.

仁煥군의 신원은 실종당시 입고나갔던 빨간색 스웨터와 녹색털바지등 옷차림이 그대로있어 가족들에의해 확인됐다.

경찰은 검시결과 仁煥군이 10여일전에 숨졌으며 그동안 70여차례에 걸쳐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다는 가족들의진술에 따라 仁煥군이 일단 유괴당해 40여일동안 감금 또는 끌려다니다 숨진것으로 보고수사중이다.

仁煥군 가족들은 실종후 泰陵경찰서에 신고, 月陵川일대에 대한 수색과 함께 유괴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왔는데 지난2월1일에는 가족들이 3만장의 수배전단을 만들어 뿌렸으나 仁煥군을 찾는데 실패했었다.

그간의 전화는 대부분 장난전화이거나 4~5분씩 말을하지않고 있다가 끊는전화였는데 2월1일 하오3시께는 50대여자로부터 『당신 아들은 잘데리고있다』고 말한뒤 끊어버린전화가 걸려왔었고 2월6일하오1시40분께는 서울말씨의 20대여자가 仁煥군의 어머니 羅英愛씨(29)에게 『31세의 언니가 과거의 당신남편에게 실연을 당해 정신이상이 됐다. 복수를하기위해 아이를 유괴했다』고 말한뒤 3일간 10여차례에걸쳐 같은내용의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

경찰은 또 단순실족사의 가능성도 큰것으로 보고있다.

3·1절特赦가석방 10代 2명 또 犯行

3·1절특사로 풀려난 10대전과자가 재범,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南大門경찰서는 17일 전과6범 池모군(18·주거부정)과 申모군(17·〃)등 2명을 특수강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13일 밤11시께 서울 銅雀區上道4洞 279의388 林槿淑씨(53·여)집에 검은 스타킹으로 복면을 하고 들어가 과도로 林씨등 가족 6명을 위협, 안방으로 몰아 놓은뒤 장롱을 뒤져 현금7만원, 전자손목시계1개등14만여원어치의 금품을 털어 달아났다는 것.

이들중 池군은 仁川소년원에서 복역하다 지난1일 3·1절 특사로 가석방 됐다.

輕犯혐의자에 폭행 重傷입힌 警官구속

부산西部경찰서는 17일 서부경찰서 감천2파출소 張哲相순경(38)을 독직·폭행등 혐의로 구속했다.

張순경은 지난3일 상오1시30분께 감천2파출소 보호실앞통로에서 경범죄로 연행돼온 金종순씨(27·부산西區甘川洞105)가 계속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양손을뒤로잡고 곤봉을비틀어 옆구리뼈를부러뜨린혐의이다.【釜山=聯】

植物人間만든 혐의 美의사에 有罪판결

【뉴포트17日聯合=外信】 백만장자인 아내 마르타·폰·뷜로(50·애칭 서니)에게 인슐린을 과다주사하여 식물인간으로 만든 혐의로 기소된 클라우스·폰·뷜로(55)에게 유죄가 평결되었다.

12명의 배심원으로 구성된 로드아일랜드州 뉴포트 법원은 16일 클라우스·폰·뷜로의 살인미수혐의를 인정, 그에게 죄가있다고 판시했다.

輸出서류위조 7億빼내

라미실업 代表수배 職員2명 구속

서울지검특수부는 17일 수출용장등 수출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은행에 제출한뒤 수출금융 7억4천여만원을 빼내 가로챈 라미실업주식회사 무역과장 하병엽(32)、동무역과직원 최예수씨(28)등 2명을 사기、사문서위조및 동행사、특수절도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한국외환은행장직인을 만들어준 대한화재보험빌딩 지하1층 17호 상명사 인장포주인 임재순씨(26·서울城東區華陽1洞)를 같은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라미실업대표 김학수、이회사 무역과 직원 이승수씨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들의범행에 은행직원들이 관련됐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착수, 한국외환은행 安養지점직원 홍모씨、충북은행 서울지점대리 전모씨、상업은행 太平路지점직원 권모씨등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최씨는 지난해 9월26일낮 11시께 한국외환은행 安養지점사무실에서 하씨가 이은행 직원 홍모씨를 『차한잔하자』며 유인, 밖으로 나간사이 은행캐비닛에 보관돼있던 수출신용장용지 15매를 훔쳐냈다.

이들은 훔쳐낸 신용장에다 개설은행난에는 일본 스미도모은행 오오사까 지점、통지은행난에는 한국외환은행 安養지점、액면 난에는 미화30만달러등으로 허위 기재한후 구속된 임씨가 판 한국외환은행 직인을 찍어 같은달 29일 충북은행서울지점에 환어음 할증화물수취증등 관계서류를 첨부해 제출、이은행대리 전모씨로부터 환어음매입대금조로 2억3백56만원을 받아낸 혐의이다.

이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81년 9월29일부터 같은해 10월5일 사이에 충북은행 서울지점에서 4차례에걸쳐 5억여원을, 상업은행 太平路지점에서 2억여원등 5차례에 걸쳐 모두 7억4천6백47만8천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불우老人에 誠金 효행자 鄭亨禮양

【順天】 全斗煥대통령으로부터 효행자로 격려금2백만원을 받은 鄭亨禮양(27·順天市安豊洞159)은 17일 격려금중 1백만원을 불우한 노인들에게 써달라고 順天市에 기탁했다.

鄭양은 지난74년 順天고등을 졸업한후 92세의 할머니가 방광암으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데다 아버지 鄭泰鎬씨(68)와 어머니 許文男여인(68)마저 중풍으로 활동을 못하게되자 결혼을포기하고 병간호에 정성을 다해왔다.

鄭양은 격려금중 1백만원은 자신의 가족을위해 사용하기로하고 1백만원은 자신의 부모와같이 불우한 노인들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市에 맡겼다.【聯】

멍든 母情

4代獨子 잃은 羅英愛씨

엄마슬픔 외면한 세상人心

아들을 막 잃은 젊은여인의 모습은 바로 「슬픔」이다. 실종 54일만에 4代독자를 집근처개울에서 변사체로 찾아낸 羅英愛씨(29·여·사진·道峰구孔陵동573의2).

기자가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를 한참헤매 羅여인을 찾았을때 그녀는 목놓아 울지도 못했다. 『우리인환(仁煥)이를 죽인건 바로 이 못난엄마…』 가끔 중얼거리듯, 울부짖듯 하다가는 천장만 멍하니 쳐다볼뿐이었다. 그것은 자식잃은 어머니만이 경험할수있는 극도의슬픔, 대상을 잃은 母性愛가 내뿜는본능적인 신음소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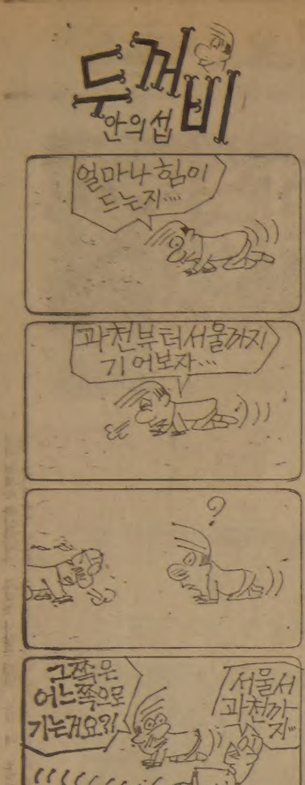
羅여인이 아들의 가출을 처음 안것은 지난1월21일. 그날부터 어머니는 미친사람이었다. 孔陵洞 일대를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헤맸다. 그동안 두드린 낯선집 대문만도 1만여호가 넘었고 보다못한 이웃집아주머니들까지 『인환이찾기』에 가세했다. 30만원 보증금에 3만원 삭월셋방의 형편이지만 1만5천여장의 수배전단을 만들었고 三松里에서 可樂洞까지 걸어다니며 한장한장 돌렸다.

그동안 羅여인을 가장 괴롭힌것은 전화벨소리. 이사이 70여건의전화가 걸려왔으나 모두가 근거없는 협박, 장난전화였다. 그때마다 가슴이 저미는 젊은 엄마는 소리없이 울어야했다. 潤相군사건을 엊그제 겪은 우리사회지만 여전히 세상인심은 엄마와 슬픔을 나누려하지 않았다.

경찰은 한술 더떴다. 전화가 오면 반드시 경찰에 연락하고 수사를 의뢰했지만 대답은 항상 『지금 손이 모자라니 3~4일후에나 보자』는 것이었다.

끝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나 희소식이 아니었다. 『어린아이 시체가 나왔으니 같이 확인하러가자』는 전갈이었다. 羅여인은 허둥지둥 주저 앉고말았다.

中浪川냇물에서 아들이 입고나간 빨간 셰터, 녹색바지, 오른쪽 다리의 빨간끈을 확인했을때 젊은엄마는 자신도 모르게 『하느님』을부르며 흐느끼는 일외에 아무것도 생각할수가 없었다. 【鄭在籍기자】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에메랄드、루비、사파이어、진주、오팔、
536-1692

♡ 주간여성 ♡
인기절찬 판매중!
3월21일자
주간女性
허름한 빌딩 은밀한 房서 스트립 쇼까지
24아내돈 뜯은 희대 사기꾼
多才MC 文智眩양의 告白
女시내10年 無名시절 夜話
列傳 楊貴妃
「한국 女權」의 문제점 分析
日本남성 美容室 날로 盛業
羅動兒 T셔츠 당첨차 發表
人氣 작가·교회 장로된 어부의 자식들의 主人公
愛人광곰비로 빈집 털어온 한국版 루팡 行脚
판매처 : 각한국식품점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 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목,금,토,일 권순근과 그일행 출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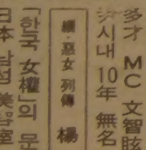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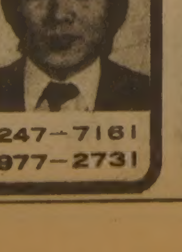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Hunts 개업인사
Hunts Bakery
카나다의 유명 제과점인 Hunt's를 소생이 개업하였음을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성원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포여러분께는 생일 결혼 Cake에 대해서 10% 할인해 올리겠읍니다 일차 왕림바랍니다
김 준 호 배
Jane & Finch Shopping Mall
☎ : 635-0187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합.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宮街600년의 世宗路 文化의 새名所로

박물관都心의 서울 5千年문화가 한눈에

요즘 한창 인기를 끌며 방영되고 있는 KBS 1TV의 주말드라마 「風雲」을 보면 야심만만한 興宣大院君 李昰應이 景福宮 勤政殿의 重建을 추진하는 장면이 나온다。大院君은 나라재정의 어려움을 들어 거세게 반대하는 조야의 여론을 무시하고 거창한 景福宮근정전 중건의 役事를 1867년 끝내 이뤄내고야만다。1592년 壬辰倭亂때 불타버린뒤 잡초더미속에 파묻혀 있던 景福宮이 옛모습을되찾으면서부터 景福宮앞에서 南大門에이르는 거리는 서슬 푸른官街로서 위엄을 떨치게 되었다。

백성들은 景福宮과 그 앞 中樞院과 議政府거리를 지나다닐 때는주눅이들어오금을펴지못했다。

남의 나라를 빼앗은 일제는 1916년 6월25일 景福宮안의흥예문, 회랑, 광화문등을 마구 헐어내고 조선총독부를 짓는 첫 삽질을 했다。이로부터 10년뒤인 1926년 석조전으로는 「동양최대」라는 조선총독부청사가 완공됐다。남의 나라 왕궁 바로 앞에 들어선 조선총독부청사는 한민족을 수탈하고 억누르는 본산역할을 했다。백성들은 나라없는 설움을 지긋이 삼키면서 조선총독부앞을 지나다니는 것을 가급적 삼갔다。大院君이나 日帝가 여러가지 어려움속에서도 거창한 役事를 벌였던 것은 건물의 偉容을 빌어 한민족을 억누르기 위해서였다。이런 연유로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앙청과 경복궁에 대한 이미지를 별로 좋게 갖고있지 않은 편이다。

조선조 太祖가 한양에 천도하고 경복궁을 지은지 실로 6백년만에 경복궁앞서 세종로에 이르는 官街가「문화의 거리」로 모습을 바꾸게 된다。정부가 중앙청을 박물관으로 만들고 그 주변을「문화공원」으로 꾸미기로 한 대결단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서울都市軸의 중심에 문화시설의核이 자리잡게된 것이다。

정부와 시청관계자및 건축전문가들의 구상에 의하면 중앙청서 덕수궁에 이르는 약1·5㎞의거리가 아시안·게임이 시작되기 한해전인 1985년까지는 명실상부한 文化街로 정비된다는것。이 계획은 서울시청을 서울시립박물관으로 만들고 국립현대미술관을 중앙청의 박물관옆에 지으며 기타 문화시설을 세종로 일대로 유치할 경우 세종로일대는 완전히 면모를 바꾸게 될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세종로주변일대의 주요문화시설을 보면(별표참조) 德壽宮, 덕수궁뒤의 쎄실극장, 성공회대성당, 세종문화회관별관, 공사중인 프레스센터, 방송회관, 감리회관, 국제극장, 동아일보, 교육회관, 대한교육보험지하의교보문고, 세종문화회관, 한국일보社, 출판문화회관, 현대화랑,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등이 있다。

정부에서 새문화가의 심장부가 될 중앙청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꾸밀 경우 화랑, 서점, 문화재매매업소, 문화카페, 다방등 문화적인 시설이 저절로 들어서게 틀림없다。또 치안본부등도 다른곳으로 이전하게되면 文化街로 완전 탈바꿈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85년까지 1.5km 정비

中央廳 뜰은 市民휴식처로… 光化門양쪽은 道路공원

1987년 8월15일 오랜만에 귀국한재미동포 A씨는 택시를타고 세종로를거쳐 세검정쪽으로가다가 깜짝 놀랐다。중앙청앞 세종로 일대가 너무나 몰라보게 변해버린 때문이다。A씨는 흥미를 느끼고 목적지까지 가지 않은채 세종로에서 차를 내렸다。

옛 중앙청앞 일대는 한국이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文化大國」임을 한눈에 실감하게 할 수 있도록 문화의 거리로 말끔히 단장되어 있었다。서울시청이 옮겨가고 대신 서울시립박물관이 들어서는가 하면 서울세종문화회관별관을 예총회관으로 새로이 꾸며놓았다。

A씨는 특수조경지역으로지정, 「도로공원」으로 만들어 놓은데 수송—국립중앙박물관앞길을 걸으면서 무척 기분이 좋았다。군데 군데 文化카페등 文化명소들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文化街중에서 가장 많이변한 곳은 옛 중앙청일대였다。중앙청은 기왕의 국립중앙박물관에다 역사 박물관, 민족박물관, 서양박물관, 동양박물관의 여러 박물관을 두루 갖춘 명실상부한 종합박물관으로 꾸며져있었고 옛중앙청뜰과 景福宮은 시민들이 머리를 쉬고 즐길수 있는 문화공원으로 단장되어 있었다。옛 중앙청앞의 차도는 모두 지하로 뚫고 대신 그 자리는 인도로 바꾸어 놓았다。

또 지하철역을 옛 중앙청뜰에 설치, 루브르박물관처럼 시민들이 지하철을 타고 바로 박물관 앞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옛왕궁과 일제총독부의 이미지때문에 선뜻 들어설 마음이 내키지않던 옛중앙청이 우리국민의것, 시민의 것으로서 누구나 손쉽게 드나드는 곳으로변한것을 보면서A씨는흐뭇하기 짝이없었다。

앞에 든 A씨의 일화는 어떤 건축전문가가 그려 본 청사진을 토대로 꾸민 픽션에 불과하다。정부는 이왕 세종로 일대를 文化街로 단장키로 한 이상 A씨가 87년에 본 文化의 거리보다도 더 잘 꾸밀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만반의 대비를 해야할 것 같다。

施設더늘려 한국象徵化

지금까지 우리나라박물관은 한국관정도에 불과했다。西域벽화와 일본회화등을 소장하고 있으면서도 한번도 전시해본적이 없을 정도로 다른문화의 전시에 인색했다。명실상부한 세계의 박물관임을 느낄수 있는 외국의 유명박물관처럼 서양부, 동양부등을 신설해야한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정부가중앙청을새박물관청사로 내놓은 것은 좋은 착상이지만 집만내주었다고 박물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새청사가 살아있는박물관으로서 文化街의 심장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돈과 사람도 충분히 주어야 한다。또 지금까지 박물관에 관람객이 휴식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없었던 점을 감안, 코피숍이나 카페테리아, 우체국등 위락시설을 완비해놓는게 바람직 할것 같다。

어떤 일본인 미술가가 몇해전 한국에와 광화문과 북악산이 있는 사진엽서를 아들에게 띄우면서 그사이에 보이는 중앙청건물은 없는것으로 생각하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를 건축가 金壽根씨에게 들은 적이있다。그는중앙청건물을 괴물로 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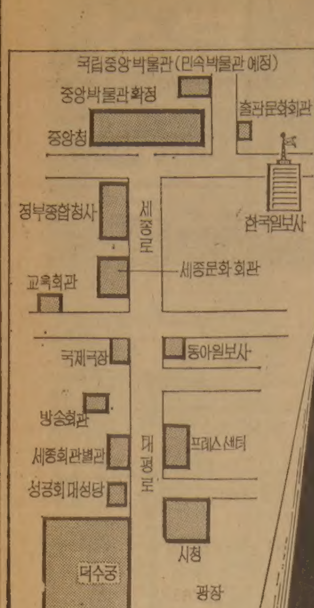
이 일본미술인의 지적처럼 지금까지 중앙청은 확실히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이 일본인미술가가 다시 한국에 와 이제는 중앙청을 괴물로 보지 않고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처럼 文化명소로 인정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려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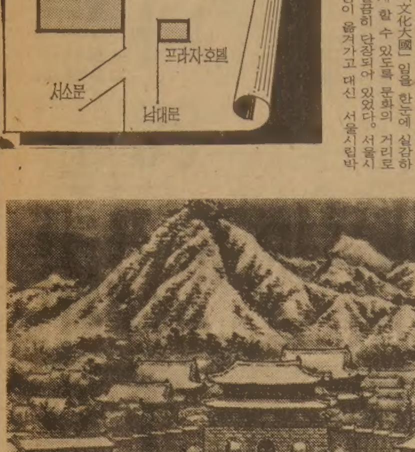
【姜大衛文化部長】

太祖가創建… 壬亂때 불타고 高宗때重建

景福宮 略史

중앙청과 勤政殿등이 자리잡고있는 景福宮은 서기1394년 太祖3년부터 官衙의 本山역할을했다。太祖 李成桂는 서울을 漢陽으로 천도하고 神都宮闕都監을 두어 鄭道傳등에 명하여 경복궁을 짓게 했다。남쪽에는 정문인 光化門, 북쪽에는 神武門, 동쪽에는 建春門, 서쪽에는 迎秋門을 두었다。그러나 1592년(宣祖25년) 임진왜란때 모두 타서없어져버렸고 1867년(고종 4년) 重建됐다。





◇동양화가 惠村 金學洙화백이 여러가지 자료를 토대로 재현해본 1백년전 서울光化門앞거리의 元旦풍경이다。이시절 이일대는 官街로서 대소관원들의 왕래가 끊이지않았다。정월초하루 賀禮를 드리고 궁궐에서 나오는 政丞과 判書의 행렬이 이색적이다。정면 光化門 뒤쪽의 건물이 임금이 賀禮를 받은 勤政殿이며, 앞쪽 좌우의 건물은 中樞院(현 종합청사 정문께)과 議政府(현 치안본부)이다。조선조 太祖때 만들어진 이 官街가 6백년만에 문화의 거리로 바뀌게 되었다。

나의 이력서

金蘇東 (題字 金蘇東) ⑬

佛文科에 적두고 軍事訓鍊도 받아

日本大豫科 시절

1930년대의 초반, 동경의 문화수준은 서울에 비할바가 아니었다。근대생활의 양식도 그러했고 다양한 교통수단도 그러했다。꿈이 많은 청년에게는 배울것이 너무 많았다。예과 불문과에 적을 둔 나는 어느새 같은반 일본학생들과 꽤 깊숙이 친교를 맺으면서 학업에 정진했다。

군국일본은 학생들에게 엄격한 군사교육을 실시했다。궁성속에있는 근위사단에 가서 사격훈련도 받고 분열행진도했다。학교에서 총을 받아들고 처음으로 교련시간에 나갔다。

총을 처음 만져보는 내가 그취급방법을 알리없다。일본학생들은 중학시절에 이미 총으로 훈련을 받았으므로 총다루는법이 능숙했다。西川이란는학생이 나의어색한 모습을 보고『바가!너는 대일본국민이 아니구나, 총을왜 그렇게 마구다루느냐』고했다。모욕적인 그언사에 결국은 西川이란는 학생과 싸움이 벌어졌다。한국청년의 자존심과 애국심이 몹시 무시당한 까닭이다。

개머리판으로 서로치고받았다。『이새끼야。나는 한국에서왔다。우리는 총을써본일이 없으니까 그럴다。어쩔테냐?』드디어는 멱살을잡고 고함소리도높아졌다。『천황폐하가계시는 궁성정문에서 이게무슨불경스러운 일이냐』면서 동반학생들이 중재에나섰다。

이때 교관인 육군소좌가왔다。우리들은 대열을지어 근위사단안으로 들어갔다。西川이라는 학생은 일본국수주의의 본보기같은 자다。高普5학년때 몇달동안 목총으로 교련을 배운일이있으나 보병총이 쓰는 실총을 만져본것은 처음이었다。

西川과 나는 교관실에 불려갔다。나는 민족을 멸시하는 이놈의 언사에 치욕감을 느꼈을 따름이라고 교관에게 당당히 말했다。교관은 끝까지 내말을듣고 西川에게 사과하라고했다。그자는 불유쾌한듯 했으나 교관은 두사람의 손을 잡고 악수하라는것이었다。

『너도 국민이며 너또한 국민이 아니냐』고 했다。교관의 말에 또 한번 치욕을 느꼈으나 결국은 그와 화해하고 말았다。이것은 동경에가서 겪은 두번째 불쾌한 일이었다。

그해가을 하숙을 옮기려고 거리를 돌아다녔다。

그때만해도 여염집유리창에 「빈방」이라고 써붙였다。빈방표시를 발견하고 가봤더니 「일본인에 한한다」는 단서가 적혀있었다。이런집에는 일부러 찾아들어가서 방을 좀 보여달라고 했다。『나는 일본인인데 댁의 방을 쓸 수 있겠지요?』이렇게 물어보면 으레『고향이어디냐?』고 물었다。『나는 한국인인데 당신들이 일본국민이라고 하지않느냐』고 대꾸했다。집주인이 몹시 당황하는 것을 보고 일종의쾌감같은 것을 느끼면서 집을 나오곤 했다。

이러한 정신적불쾌감은 동경어느곳에서나 느낄수 있었다。그래서한국사람들이 일본인이름으로 행세하는 자가 많았다。이 또한 서글픈 동경생활의 일면이기도했다。

전매청장을지낸 대한동창 金思植과 新宿에 있는 나까무라야(中村屋) 빵집에 자주 갔다。

인도 카레와 독특한 만두빵으로 이름난 집이다。하학길에 무료한 한때를 이집에서 지내기가 일수였다。

어느날 길건너 악기점에서 기타를 곁들인 유행가가 라우드스피커를 통해서 선명하게 이집까지 들려왔다。그것은 바로 그시대가요계를 풍미한 古賀正男의 「술은눈물인가, 한숨이런가」였다。

기타 반주도 좋거니와 노래는 더욱좋았다。누구나 매료될수 있는보편성을 가졌을뿐더러 지금까지 들어볼수 없었던 독특한 무드가 담겨있다고 생각했다。

이노래는 과연 일본전국을 풍미했고 한국의 시골 방방곡곡에 까지 퍼져나갔다。내가 가요곡에 깊은감명을 받은 것은 바로 이때라고 생각된다。古賀라는 작곡가는 일약명성이 높아졌고 레코드는 불티나듯 팔려나갔다。

金군과 나는 거리로 내려가서길건너 악기점으로 들어갔다。거기에서 또한번 듣고 나는 악보를 샀다。후일 레코드회사를 설립한 가장 큰 원인이 된 셈이다。

그후 기타를 사서 꽤 능숙할 정도로 가요곡과 클래식기타를 수련했다。대학음악부의 중요멤버로 활동하게 된것도 바로 이때부터다。

동경시사신문강당에서 열린 연주회에도 출연했고 내 나름대로 가요작곡도 시도했다。明治大學 만돌린부를 지도하는 古賀正男씨를 찾아가서 내가 작곡한 것의 비평도 받았고 지도도 받았다。

◇日本大豫科졸업때 친구들과 찍은 기념사진。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필자다。

日人학생 民族차별 발언으로 싸우고 한국인 거절한 下宿집주인 골탕먹여

한국、쿠바와 最終戰

서울世界야구 새對陣 확정

국제야구연맹(AINBA) 기술위원회는 17일 오는9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7회 세계야구선수권대회 대진일정을 최종확정, 발표했다。

한국은 당초 예정대로 9월4일 잠실구장서 하오1시 개막식에이어 하오3시 콜롬비아와 첫경기를 벌이며、최종일인 18일 하오5시 폐막식에앞서 지난대회 우승팀 쿠바와 최종경기를 갖는다。

◇대회 주요 일정

4일 1시		개막식	(잠실)
	3시	콜롬비아—한국	(〃)
5일	〃	한국—미국	(〃)
6일	〃	화란—한국	(인천)
7일	6시반	일본—쿠바	(서울)
8일	〃	대만—한국	(〃)
10일	1시	이탈리아—한국	(잠실)
11일	12시	베네수엘라—한국	(〃)
	6시반	미국—일본	(〃)
12일	〃	한국—일본	(〃)
13일	〃	한국—호주	(서울)
16일	3시	한국—캐나다	(〃)
17일	〃	멕시코—한국	(〃)
	6시반	쿠바—미국	(〃)
18일	5시	한국—쿠바	(잠실)
	8시반	폐막식	(〃)

卓協상임理事선임

탁구협회는 상임이사진을 金境峻(전무)朴道天(국제) 金榮植(총무)朴聖仁(경기) 白松彬(심판) 李鍾春씨(기획)兪鎭奎(섭외)로 개편했다。

朴柱奉 2회 탈락

덴마크 배드민턴 中共에 져

【코펜하겐17日UPI聯合=特約】한국 배드민턴대표팀은 유럽원정 2번째 무대인 덴마크·오픈서도 여전히 고전, 여자부의 金練子만이 1회전을통과, 부전승으로 2회전에 올라온 黃善愛·金允淑과 합류했다。金練子는 1회전서 캐나다의 헤밀턴에 12-11, 11-1로 이겼다。

남자부의 朴柱奉은 1회전서 덴마크의 플라드베르크에 완승했으나 2회전서 中共의 헤상구안에게 15-11, 15-11로 패배했다。

◇첫날 전적

▲남단식 1회전	朴柱奉	2 (15-11, 15-12) 0	플라드베르크
	니르호프	2 (15-9, 15-11) 0	李恩求
▲동 2회전	헤상구안	2 (15-11, 15-11) 0	朴柱奉
▲여단식 1회전	金練子	2 (11-1, 12-11) 0	해밀턴
	요네꾸라	2 (11-6, 7-11, 11-8) 1	柳衛希

海外부동산 投資 업무용 심사제외

全經聯 건의

全經聯은 기업들의 모든해외부동산투자에 대해 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포괄규정이 원활한 해외진출, 시장심화및 사업확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있다고 지적, 업무용 부동산 취득에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해줄것을 건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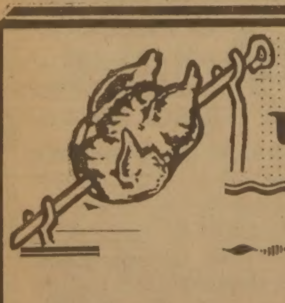
프로野球유니폼에 商品광고계약

스포츠短信

스포츠용구메이커들의 광고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운동화「프로스펙스」의 메이커인 국제상사는 프로야구팀 롯데·자이안츠、MBC청룡、해태·타이거스 선수들의 유니폼에「프로스펙스」상표를 부착、광고해주는 댓가로 연간 3개구단에 대해 약6천만원 규모의 운동용구를 제공하는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親知에 한국일보를 보냅시다

한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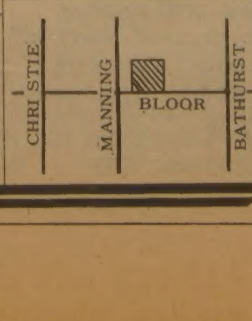
내고향통닭집

-특별봉사가격-

김밥 : $2.95	곰탕 : $3.50
생선초밥 : $4.50	설렁탕 : $3.95
오뎅 : $3.00	빈대떡 : 3개 $1.50
오뎅백반 : $3.75	만두 : 4개 $1.00
가끼우동 : $3.00	에그롤 : 4개 $1.50

658½ BLOOR ST. W.

537—0432 Mrs. Lee



협력해 주십시오

메트로·토론토경찰에 대한 항의를 접수하는 새 독립기구가 생겼다. 시민이 책임자로 있는 이 기구는 경찰이 봉사하는 시민과 경찰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온타리오 의회가 제공한 새 법에 의하면 시민은 다음 일을 할 수 있다.

- 시민들은 항의접수기구에 직접 항의한다.
- 항의가 30일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처리결과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받는다.
- 조사가 끝나면 최종 보고서를 받는다.

항의기구 책임자는 독립적인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그는 시민 전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할때 시민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에 앞서 공청회를 요구할 수 있다.

R. Roy McMurtry
Solicitor General

Paul Godfrey
Metropolitan Toronto
Chairman

위원장

항의기구 책임자는 캐나다시민자유연합회의 최고 법률고문이었던 변호사 시드니·린든(Q. C.)씨이다. 그는 형사법변호사협회 부회장을 지낸 양심적인 시민이다.

그의 책임은 경찰에 대한 모든 불평불만을 검토하는 것이다.

"I have the highest regard for him as a civil libertarian and for his appointment... He is a most credible person and an excellent lawyer." – Dr. Dan Hill, Special Adviser to the Mayor's Committee on Race and Community Relations, Toronto.

"I for one, have great confidence in Mr. Linden." – Alan Borovoy, 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

"...His reputation is excellent and completely acceptable." – Robert Nixon, Liberal M.P.P. and former Opposition Leader.

"The Council feels that Mr. Linden is a very capable criminal lawyer and will discharge his responsibilities with great awareness and with fair dealing." – Multicultural Council in Greater Toronto.

이 제도는 시민을 위해서 마련됐다. 시민들은 개인적으로 이 기구에 접촉한다. 협력해 주기를 부탁한다.

문의처 : 963—1141

LISBON AUTO COLLISION INC.
●토잉써비스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이영두, 이건하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주식회사
신의상사
116 Tycos Dr.
☎ : 789-7544

식 품 점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삼 복 식 품 ☎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주7일영업. 배달합니다.

서 울 식 품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 field Rd.
☎ : 291-8317

제 일 식 품 (구 단풍식품)
●7DAYS OPEN(오전10~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 : 532-1054(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 주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 : 531-2242

신용조합

한 인 신 용 조 합
641A Bloor St. W. (2nd Fl.) Tor. Ont. M6G 1L1
☎ : 533-9387

천주교회 신용조합
941 DUNDAS ST. W. TOR. ONT. M6J 1W4
☎ : 363-0097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약 국

돈 밀 약 국
☎ : 429-4117
이 요 한

SUPER×DRUGS
☎ : 368-2746
조 남 오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파티드레스··웨딩드레스·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O' 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인벤토리

— INVENTORY —
①STORE인수, 인계 INVENTORY
②STORE정기조사 INVENTORY
③STORE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 :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여 행 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제 일 여 행 사
649 A BLOOR ST. W. (김 종조 종합보험 옆)
☎ : 535-2377
유 지원, 신 용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Tor. Ont. M5A 1A1
☎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 히팅· 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KIM냉장고·에어콘S 749-3178
시설·수리·판매 김 진환

CENTURY ☎ : 221-5441
(냉동기 시설및 수리) 미스타 이

운전학교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35

아스트라 운전학교 ☎ : 769-1960(B)
743-3377
761 Jane St. Mr. Eastman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 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창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 : (B)789-7351, 789-7352
대표 이인용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윤 종 대 ☎ : 493-8894
•주 보 •명 함 •청첩장 •책 자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 : 535-3520 곽 호 중

윌슨인쇄소 ☎ : 638-6919 임 윤 식
904 Wilson Ave. Downs view, Ont. M3K 1E7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 746-0675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전기덕

FIRST AUTO SERVICE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 0200 (R) 533-2157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8247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82 송 창 섭

O. K. AUTO BODY
수리중 차대여, 모든 보험관계
138 SIXTEENTH ST.
☎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532-3946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라지에타 개스탱크 · 히터 · 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ROGERS GARAGE(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 :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자동차 매매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 : 264-2311 조 의 문

Grant Brown
1575 Weston Rd.
☎ : 247-7161 이 한 구

North York Chev. 김 병 권
7200 Yonge St. Thornhill
☎ : 881-5000

장 의 사

장 의 사 (R. 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 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이 경 복 회계사무소
INCOME TAX & BOOKKEEPING ☎ : 766-5639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 : 278-7300 MISSISS.

Chung's Accounting 정 필 주
▪T-x Return, Planning
전 C. A. Firm Accountant ☎ : 661-1819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희자)
☎960-0074

Y 어린이 학교 (김창열)
☎536-11b

미시사가 한글학교
☎822-6438

샛별한글학교 (스카부로)
☎267-2292

쇼햄한글학교
☎663-1178

김용순 무용연구소
☎924-3905

김미영 한국민속무용연구소
☎ : 499-5079

한 방 원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는 CASH이상 환영.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뜸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Ontario St. #517(St. Jamestown)박영숙

신비의 생 약 " 알로베라" 판매 정 효 기
가정 상비약으로 필수
4020 Dundas St. W. ☎ : 248-1362(R), 769-4347(B)

카펫 · 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체어 · 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태 권 도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특별대매출, ●월부판매 알선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서부 Finch West Mall (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766-4770
o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o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o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킬×던다스)

귀 사업체는 —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광고 신청은
☎(416) 533~2361~4
●크레딧·카드로 광고비를 지불하셔도 됩니다.

파실물건이 있으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렌.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한국일보 각 식품점에 배달하실분 구함 (화요일과 목요일)
※영문, 한글타자에 능하신 분으로 식자 배우실분 구함(남, 녀관계없음)
☎ : 533-2364

「여행」을 팝시다
여가를 이용해서 돈을 법시다. 파트타임 희망자로 단체, 업체, 노인그룹, 클럽등과 접촉이 있는분은좋은기회 입니다.
본사가 훈련하고 뒷받침 해줌. 영어 필요. 코미션만 지불.
☎ : 675-1960

도너스 가게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
☎ : 284-9325, 282-3353(스카보로지역)

입주하셔서 애기(5살, 1살 6개월) 봐 주실분 구함. 돈·밀지역.
☎ : 429-6838(R), 499-4459(B)

출퇴근하시면서 애기 봐주실분 구함. 오후 5시 이후 연락바람. (돈·밀지역)
☎ : 749-4061

도너스 가게에서 밤일(Full Time)하실분 남자분 구함(밤12시~아침8시)
☎ : 531-2689

경험있는 가게캐셔구함(남녀관계없음) (베이뷰×핀치)
☎ : 223-3865, 493-6895

입주하셔서 애기봐주실분 구함. 출퇴근도 가능
☎ : 742-0434

경험있는 풀 타임 헬퍼(남자분) 구함
1666 Queen St. W. ☎ : 532-6143, 532-9638

피터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하게 중고차를사서 피해를 입은분은 급히 연락바람.
☎ : 928-0556(Mr. Kim)

경험있는 캐셔 구함. 서부지역
저녁 5시부터 밤 11시까지
☎ : 767-0762

매매및 양도

"가정 사정으로 급매"
적은 자본으로 베커 운영하실분
혼자운영 가능 2층에 2베드룸 포함.
주매상 : $3,500이상
렌트 : $472(월)이층살림집 포함
☎ : 535-3550

① 최신식 방갈로, 사정에의해 급히 팔고자함. 3베드룸(핀치×베더스트) 좋은 모개지, 아스킹 : $129,000
② 도너츠와 햄버거 도너츠 주매상 : $4,500 햄버거 주매상 : $2,500 비데오 머신에서만 월수입 : $10,000 요구액 : $289,000
③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 $4,500(일종의 Tuck Shop)요구액 : $82,000
④ 점포와 3베드룸 아파트, 요구액 : $82,000
이 훈모 부동산 ☎ : 225-1204

버라이어티 스토아와 2베드룸 아파트
주매상 : $4,000 재정명세서 있음.
건강상의 이유로 매매코저 함.
☎ : 763-5161(Cliff or Joe)
Cimerman Real Estate Ltd. Realtor.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가격 : $1900 스탁, 비데오 머신도 있음.
1430 Dundas St. W(Gladstone코너 :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BASKIN ROBBINS
아이스크림 가게 매매
—년매상 $150,000이상(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케잌)
—가격은 면담후 결정함.
—토론토에서 약 70마일거리로 Mall안에 있음.
—사업은 보장됨.
—개인사정으로 좋은 가격에 급매코저 함.
360 George St. N. Peterborough ONT.
☎705-743-3152 Mr. 유

과일가게에서 필요한 장비 일절 팝니다.
★야채쿨러(10ft. 2개 $2,500)
★밀크오픈쿨러(10ft. $2,000)
★오픈 후로즌(10ft. $2,000) ★저울($800)
1503 Bayview Ave. ☎ : 485-9419(Mr. 최)

카테지(8채)공원을접한 해변가까이 있음
2베드룸(2채), 1베드룸(4채), 배츄러(2채)
아스킹 : $99,800, 다운페이먼트 : $35,000

아파트 밀집지역 건너편 광장안에 위치한 바쁜지역의 버라이어티 가게와 기프트가게($26,000)
드라이크리닝($13,500)
Doris Burda ☎ : 763-5555
R. Cholkan Co. Ltd. Realtor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낵·바, 드라이크리닝을 겸해 할수 있는 상점, 살림집 포함(베더스트×로렌스)
오전 10시~오후 8시 ☎ : 783-0134

생선가게 팝니다. (퀸스웨이×로얄욕)꼭관심있는 분만 연락바람)K & R(Sea Food)
☎ : 259-1585(Mr. Joe Bondreau)364-3883(Frank)

과일점이나 기프트 샵을 하기에 좋은 더프린 근처 1784 Eglinton Ave. W. 에 위치한 건물팝니다.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조그만 버라이어티 스토아급매(로타리오 머신 있음) 주매상 : $2300, 렌트 : $350(월)
714 Scarlett Rd.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Smith Corona 영문전동타자기 $500
최신형, New, 사무용이나 학생용으로 무난.
☎ : 533-2364 김.

가정의 벗 한국일보

하우스 렌트

방세놓음(월 : $170, $140) 독신자환영
Pape Subway에서 1블락거리
☎ : 282-0236, 466-3764

독신자에 한함. 월 $190
가구 갖춰 있음(St. Clair W. 근방)
☎ : 763-3289

사무실·점포 렌트

사무실 렌트 원하시는 분
— 600 sq. ft (2층)
— 500 sq. ft (3층)
☎ : 921-2304 Mr. 최
830 Yonge st. (영 × 블루어)

여권 분실

3월17일 낮12시에서 2시사이에 크리스티 써브웨이로부터 케네디까지, 그리고 43번, 53번 두번에 걸쳐 버스를 갈아타는 도중에 분실된 것으로 간주되는 여권 2매(영주권 각기포함) 찾아주시는 분에게는 사례하겠읍니다. 협조바랍니다.
김해영(여) : No. R: 318315, 민재홍(남): No. R: 350670
연락처 : 431-7168 (Mr. 김 남 수)

간 판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42-5194(여정례)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8(B), 279-3719(R) 허소피아

크로스웨이(구 플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김

도 서 판 매

범한서적주식회사 북미총판
광복20년(전25권), 한국인물사(전10권)삼국지(전6권)
한국의 가정요리(4권), 새생활백과(전8권),
가정종합병원, 대 한한사전, 토지(전6권)등
1712 Queen St. E. Tor. Ont. ☎ : 690-2216 Mr. 최규홍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매매 부동산

A. E. LEPAGE (우덕이)
☎ : 741-9170

CANADA PERMANENT (황순일)
☎ : 481-3443

이대환 부동산 ☎ : 535-1251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 : (B) 752-3111, (R) 298-2546

D. F. McALLISTER R. E. LTD. 김시성
투자전문 (IC & I) ☎ : (B)497-0600 (R)298-8558

황용현 부동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 : (B) 449-8644~5, (R)286-1548

ROYAL TRUST (유복영)
☎ : 762-8255 West 지역

이훈모 부동산 ☎ : 225-1204

미 용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로 마 노 미 용 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 : 248-2957(B) 247-6875(R)

헬 렌 미 용 실 김 조 자
377 Albion Rd. 한국식품 서부지점에서 동쪽에 위치
☎ : 741-7829

킴 스 미 용 실 (코리아하우스 뒤)
☎ : 532-7094(B), 248-2437(R)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보 험

Canada Life (강 학 수) ☎868-0922

김 종 조 종합보험 ☎537-7200

Sun Life (김 신 명) ☎922-3111

임페리얼 Life (김 홍 량) ☎482-0166

Sun Life (백 용 빈) ☎497-3800

조 규 혁 종합보험 ☎233-6236

Sun Life (윤 호 영) ☎922-3111

번역및통역

번역 CHARLES YU(유죄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통역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합니다.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관 통역등 해드림.
☎281-1677 이영화(전 대학강사)

불 교

대 각 사 ☎ : 463-8998
11 Dawson Ave. Tor. Ont.

불 광 사 ☎ : 223-9152
288 Hownslow Ave.

선 련 사 ☎ : 532-3491
46 Gwynne Ave.

사 진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택 619 BLOOR ST. W.

무지개 칼라—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535-2143

미 도 파
454 Bloor St. W. ☎536-1692

빅·세븐
678 Bloor St. W. ☎ : 533-7966

Mister Oh for Men
☎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래 100% 효과 366-0960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스 포 츠

브랜든 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취급
337 BLOOR ST. W. ☎ : 598-3732 이 건 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요일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Kipling × Albion)
☎ : 742-1205(B), 745-1632(R) Mr. 마

시설및 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Mr. Kim
시설및 수리(상, 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 : 425-8585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전기시설·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 : 270-3118 오현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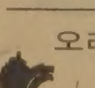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 주중=낮12시~저녁10시, 주말=낮12시~밤12시
■주소 : 2432 Eglinton Av. E. Scarboro(at Kennedy)
☎ : 759-8512 최 영 호

동 궁 (홍콩식 중화요리 전문)
영업시간 월~금 오전11시30분부터~새벽 1 시까지
토 오후 4 시30분부터~새벽 1 시까지
일 오후 4 시30분부터~ 밤10시까지
1416 VICTORIA PARK AV. (South of Eglinton) 757-6384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 : 532-0602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 까지 : 낮12시~새벽 1 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 :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 · 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 : 536-8666

한 국 관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대소연 200석 완비
OPEN 11 : 00AM~1 : 00AM
628 BLOOR ST. W. (☎ : 536-0290, 531-0277)

클링턴하우스
693 Bloor St. W.
☎ : 535-9541 김 영규

거 구 장 5 Bethridge Rd.
☎ : 742-1618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745-6792(Mr. 우)

* 한국일보 안내광고 *